



도시연대는

98년 11월 청소년들과 함께 인사동 탐방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청소년들과 조를 나누어 인사동에서 사라진 역사문화유적지 찾기, 인사동에서 20년 이상 된 가게 찾기, 인사동 골목길 및 마당 스케치하기, 인사동과 어울리는 것과 어울리지 않는 것 촬영하기 등의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 4월부터 매달 청소년, 어린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사동 탐방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00년에는 도시연대 북촌문화센터가 주축이 되어, 인사동의 역사와 유래, 현실, 특색 있는 문화 등을 전달하는 인사동학교와 시민들이 함께 인사동의 문화를 느껴보는 인사동 거리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01년 올해에도

인사동의 역사문화가 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인사동에 관심 있는 분들은 도시연대 북촌문화센터로 연락바랍니다.

목 차

2001 인사동학교

『인사동 바로 알기 그리고 느껴보기』

- 2 인사말
- 3 프로그램 및 일정소개
- 4 2001년 인사동 학교
- 4 인사동 바로 알기
- 4 인사동 다가가기
- 8 인사동 동네 이야기
- 13 인사동 작은 가게 살리기 운동
- 18 인사동 그 바람직한 모습 가꾸기
- 20 인사동 느껴보기
- 20 인사동 전체 탐방 「인사동 살펴보기」
- 22 인사동 주제별 탐방
- 22 인사동 역사문화유적지 탐방 「인사동 역사의 흔적 찾기」
- 34 인사동 문화업소 탐방 「인사동의 특색 있는 문화 이야기」
- 40 인사동 작은 가게 탐방 「인사동의 수공예 업소」
- 42 인사동 가로 및 골목과 한옥 「인사동 생각하기」
- 42 도시연대와 함께 한 인사동의 발자취
- 46 '인사동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인사모)의 구성과 도로 확폭 반대활동
- 47 작은 가게 살리기 운동
- 48 인사동 사랑방
- 50 천상병 문학제
- 51 인사동 역사문화탐방행사
- 52 인사동 학교
- 53 인사동 가이드북 제작
- 55 인사동 거리문화 축제
- 58 도시연대 활동 소개
- 60 체험학습란

인사동학교에 입학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노승대(도시연대 북촌문화센터 소장)

서울이 조선의 수도로 정해진 지 600여 년이 지난 지금 도심에서 왕궁 등의 궁궐문화를 제외한 일반 백성들의 삶의 흔적이 배어있는 역사환경들은 쉽게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도심 재개발사업 등에 밀려 파손되고 이전되고 멸실 되었기 때문임은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뒤늦게나마 인사동과 가회동 지역 일대에 남아있는 한옥들과 문화유산들을 지키려는 노력이 자생적으로 일어나고 그 흐름 속에서 도시연대도 한 몫을 하었다고 자부합니다.

인사동학교는 단순히 문화유산을 보호하자는 차원을 넘어 우리가 지켜야 할 문화유산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앞으로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줄 것인지를 같이 공부하고 생각해 보자는 모임입니다.

인사동지역에는 탑골공원 내에 국보 2호인 원각사지 10층 석탑을 비롯해 운현궁, 민익두 가, 천도교대교당, 승동 교회, 조선일보 옛 사옥, 우정총국, 조계사 등 조선조 말과 일제 강점기에 걸친 수많은 역사의 흔적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짧은 과정이지만 열심히 배우시고 답사하셔서 좋은 성과 얻으시기를 바라며 도심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깊은 애정 보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2001년 인사동 학교 - 『인사동 바로 알기 그리고 느껴보기』

인사동에 학교가 있냐구요?

그럼요, 역사문화의 거리로 유명한 인사동의 소중한 가치를 바로 알고 보존하기 위한 시민참여마당으로 스스로 익히고 가꾸어 가는 학교입니다.

할머니에게서 옛날 이야기를 듣듯이 인사동에 얽힌 역사와 문화이야기를 듣고 인사동 곳곳에 숨어 있는 역사 유적지, 한옥 등의 탐방도 하게 됩니다. 또한 골목 구석구석 누비며 인사동의 보물들을 찾아 스스로 익히는 체험학습도 마련되어 있어 도시에서 보기 드문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사동학교를 수료한 시민들은 인사동 전통문화환경을 보전하는 도시연대 북촌문화센터의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주 제	구분	교 실 강 좌	탐 방	
			전체탐방	주제별 탐방
인사동 알아 보기	1기	인사동의 역사와 유래, 변화과정 - 이상구(경기대 건축학부 교수)	인사동	인사동 역사문화 유적지
	2기	인사동의 문화적 특성과 현실 - 김영복(문우서림 대표)		인사동 문화업소
인사동 가꾸기	3기	인사동 작은가게 살리기운동의 과정 및 성과 - 나정수(동서표구사 대표)		인사동 작은 가게
	4기	바람직한 인사동 만들기 - 최정환(도시연대 사무총장)		인사동 가로 및 골목과 한옥

학교 일정

날 짜	시 간	내 용	장 소
첫째날(화요일) 5.15 / 6.12 9.11 / 10.9	19:30 ~ 19:40	입학식	민예총 중강의실
	19:40 ~ 20:40	교실강좌	
	20:40 ~ 21:00	질의응답 및 공지	
둘째날(토요일) 5.19 / 6.16 9.15 / 10.13	15:00 ~ 15:20	전체탐방 오리엔테이션	민예총 중강의실
	15:20 ~ 18:00	전체탐방	인사동
셋째날(토요일) 5.26 / 6.23 9.22 / 10.20	15:00 ~ 15:20	조별모임	민예총 중강의실
	15:20 ~ 17:00	주제별탐방	인사동
	17:00 ~ 18:00	수료식 및 저녁식사	섬진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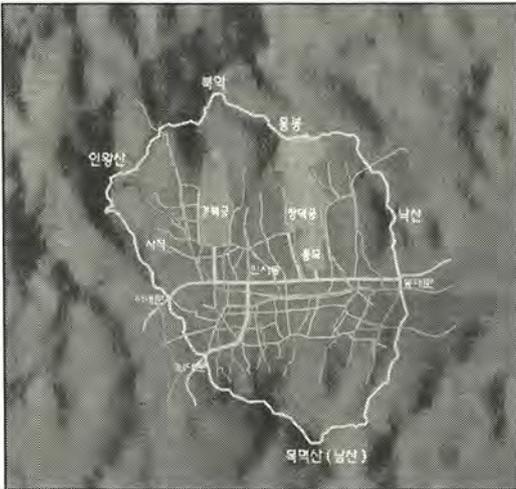
인사동 다가가기

시간을 겹겹이 간직한 인사동, 역사 속에서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서울은 600년 역사의 깊이를 간직한 도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00여년 전 서울은 조선왕조의 도읍지가 되었습니다. 조선왕조를 창건한 태조 이성계는 왕위에 오른 바로 다음달(1392년 8월) 서울로의 천도를 결정하였고, 2년 후인 1394년 10월 천도는 실현되었습니다. 이로서 서울은 조선왕조의 새로운 도읍이 된 듯 하였지만, 한 나라의 도읍을 새롭게 건설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태조를 이어 왕이 된 정종은 서울로 천도한지 5년도 되지 않은 1399년 3월 아직 미비했던 서울을 뒤로하고 이전의 도읍 개성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태조의 서울천도 결정 이후 13년이 지난 1405년 10월 3대 왕 태종이 다시 서울로 돌아오므로써 서울은 비로써 500년 조선왕조의 도읍지로서의 흔들림 없는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이 조선왕조의 도읍으로 자리잡기까지의 13년 간 여러 후보지들이 거론되었습니다. 계룡산에

서는 한때 새 도읍을 건설하는 공사가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후보지들을 물리치고 서울이 최종적으로 도읍으로 선택된 이유는 서울이 한반도의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또한 한강이라는 큰 강을 끼고 있어 사람과 물자가 어느 곳으로부터나 치우침 없이 쉽게 통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서울 일대는 옛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경계를 마주하던 접경지대여서 삼국의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침이 없었고, 이전 왕조인 고려로부터도 자유로운, 역사적으로도 치우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서울의 지형, 길, 물길의 모습

서울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조선시대 서울을 둘러싸고 있던 성곽은 북악, 인왕산, 남산(목멱산), 낙산(타락산)의 능선을 따라 세워졌습니다. 이들 네 개의 산을 서울의 내사산(內四山)이라고 합니다. 결국 조선 초의 서울은 북쪽으로는 북악, 서쪽으로는 인왕산, 남쪽으로 남산, 동쪽으로 낙산의 능선들에 둘러싸인 아늑한 분지에 자리잡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곽으로 외사산(外四山)인 북한산(북쪽), 덕양산(서쪽), 관악산(남쪽), 용마산(동쪽)이 다시 이중으로 감싸안고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인구 천만이 넘는 대도시로 성장한 오늘의 서울도 대체로 이들 외사산으로 둘러싸인 범위에 있습니다.

도시를 산능선으로 둘러싸는 방법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이어져 온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주변의 지형지세를 적극 활용하여 도시를 건설하는 전통이 서울로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성곽을 쌓아 도시의 외곽 경계를 결정하는 것에서뿐만 아니라 도시 안에 길을 내고 주요 시설들을 배치하며 동네를 만들어 가는 방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시가 들어설 자리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선택한 땅이 갖고 있는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여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 자연의 질서와 사람이 만들어낸 도시가 하나로 조화를 이루어 사람을 배제한 자연이 아니라 그 안에 삶을 함께 하는 사람들까지를 감싸안은 자연의 질서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도시 만들기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옛 서울의 길과 물길은 닦은꼴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흘러 작은 물줄기를 만들고 이 작은 물줄기들이 다시 모여 큰 물길을 만들어 내듯 옛 서울의 길들도 작은 골목길들이 큰길로 모이고 다시 더 큰길로 모여드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옛 서울의 가장 큰 물길은 개천이라 불리던 지금의 청계천이며 또 가장 큰길은 서대문에서 동대문으로 서울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종로였습니다. 북악과 인왕산의 골짜기에서 물길이 남쪽으로 흘러, 남산에서 내려오는 물길이 북쪽으로 흘러 서울의 한복판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청계천으로 흘러 들어가듯 길들도 북쪽에서 남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연결되어 종로에서 만났습니다.

서울사람들의 삶도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생활은 골목길을 중심으로 하는 동네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골목길 하나가 하나의 동네인 경우도 있어서 도시의 물리적인 길의 체계와 행정구역의 단위, 공동체의 단위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골목길과 그 주변의 집들이 들어섬으로서 동네가 만들어지는 것도 오늘날과 같이 한꺼번에 '똑딱' 하고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집 한집 점진적으로 들어서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골목길들이 예외 없이 꺾어지고, 휘어져 길의 선형의 변화가 심하고, 길 너비도 한결 같지 않고 변화가 심하며, 길과 길이 만나는 방식이 네거리의 거의 없고 대부분 세거리인 것은 골목길이 한번이 아닌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토막토막 이어져왔던 것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구불구불 꺾어진 우리의 골목길은 거기에 집을 짓고 동네를 이루며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삶의 흔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도시를 하늘 위에서나 궁궐 위에서 굽어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삶터를 가졌던 보통 서울사람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보았을 때, 서울의 길들이 휘어지고 구부러지고 불규칙하여 볼품 없어 보이는 그 자체가 바로 서울이 자연에 순응하며 서울을 삶터

로 했던 많은 사람들의 삶의 흔적의 누적체로 만들어졌다는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담고 있는 것임을 깨우쳐 줍니다.

인사동에는 그런 우리도시의 옛길들이 살아있습니다. 인사동의 중심을 가로지르고 있는 인사동길은 조선시대에 종로와 북촌지역을 연결하는 비교적 큰길이었습니다. 인사동길의 안국동쪽 입구와 종로쪽 입구부분은 길이 넓혀졌으나 그 외의 부분들은 옛 모습 그대로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느슨하게 구부러진 인사동길에서 우리 옛길의 여유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동에는 서울에서 가장 변화했던 거리인 종로가 있습니다. 종로 바로 뒤편에는 서민들의 길인 피맛길도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사동을 인사동답게 만들고 있는 것은 좁고, 구부러지고, 꺾어진 골목길들입니다. 골목길은 지금까지 인사동에서 살며, 인사동을 만들어온 사람들의 삶의 흔적들입니다.

인사동은 서울의 한복판에 위치하여 600년 역사의 깊이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서울 중심점 표지돌(1896년 세움)이 인사동에 있음이 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사동은 역사의 중심무대이기도 했습니다. 세종대왕이 승하하신 곳이 이웃 안국동이었고, 율곡 이이선생도 인사동에서 사셨습니다. 조광조의 집도 길 건너 교동초등학교 자리에 있었고, 인조는 어린 시절을 외가였던 인사동에서 지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말 안동 김씨들의 세도의 본거지도 여기 인사동이었으며, 대원군의 운현궁도 바로 이웃한 운니동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런가하면 개화사상이 싹트기 시작한 곳도 바로 북쪽의 재동이었습니다. 그 중심인물중 한사람이었던 박영효가 살던 집이 바로 지금의 경인미술관 자리에 있었습니다.

삼일운동 또한 인사동과 관련이 깊습니다. 삼일운동은 인사동의 승동 교회의 지하에서 준비되었으며 태화관에서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을 선언했고 탑골공원으로부터 만세소리는 시작되었습니다. 한 때 태화관은 친일파 이완용의 별장이자 친일파의 교육장으로 이용되기도 하였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고초를 겪었던 종로경찰서도 인사동에 그리고 바로 이웃한 지금의 제일은행본점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사동은 우리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문화와 경제상으로도 인사동은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도화서가 있어서 이미 오래 전부터 미술의 중심이었고, 최초의 신식극장인 장안사도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최초의 사옥을 건립한 곳도 인사동이었으며 탑골공원은 대한제국기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시민공원이었습니다.

종로는 조선 초부터 서울의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로 들어서서는 충무로, 명동의 일본인 거리와 대립되는 조선인의 거리로서 조선인의 상업중심지이자 사회적 중심지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최초의 백화점이었던 화신백화점도 여기에 세워졌습니다. 지금은 헐린 이 건물은 조선인건축가 박길룡이 설계한 우리나라의 대표적 근대건축물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인사동이란 이름은 행정구역상의 '인사동'이라는 이름으로보다는 종로와 율곡로, 우정국로와 낙원동길을 경계로 하는 구획의 전체 범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본래의 인사동이란 이름은 1914년의 행정구역개편 때에 조선시대의 행정구역의 명칭이었던 관인방의 '인'과 대사동의 '사'를 모아 만들어진 것입니다. 현재 행정구역상의 인사동은 조선시대에 대사동이라 불리던 곳입니다. 이 대사동이란 이름은 탑골공원자리에 있던 원각사와 흥복사로부터 비롯된 것으로서 큰절이 있는 동네란 뜻이었습니다.

인사동이 지금과 같이 골동품, 고미술품, 화랑, 고서적점 등이 모인 곳으로서 두드러지게 된 것은 금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였습니다. 금세기 초반에 먼저 골동품상들이 모이기 시작하여 1920-30년대에는 고서적점들이 들어서게 되었고, 1950년대에는 낙원동 일대에 떡집들이 모여들었으며, 60년대에는 필방들이, 70년대에는 표구점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화랑가가 형성된 것도 70년대의 일이었습니다.

오늘의 인사동에는 이렇게 쌓여진 시간의 층들이 살아 있습니다.

인사동 동네 이야기

지금의 인사동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변화되어 왔을까요?

인사동에 들어오면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있다. 시골 산소에 있던 문무석상(文武石像)이나 아니면 장승. 또 더 자세히 보면 제사 때나 보았던 낫그릇, 아니면 옛날 시골집 벽장이나 할아버지 방에나 걸려 있었던 휘갈겨 쓴 글씨나 난초, 대나무 그림들이 종종 보인다. 아마도 이런 여러 모습들이 인사동을 처음 와 본 이의 첫 느낌일 것이다. 또 다른 곳에서는 쉽사리 볼 수 없는 서양 유명화가의 그림이나. 교과서나 신문지상에서 이름이 자주 거론되는 국내외 유명 작가의 그림을 쉽게 구경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런 저런 옛날 것과 요즘 것을 동시에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곳이 이곳 인사동이다. 옛 우리 서민들이 썼던 시시콜콜한 물건부터 심지어는 궁중에서만 썼던 일반인은 쉽게 볼 수 없었던 여러 골동품들이 이 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자주 눈에 띈다. 몇 백년 전의 거리를 걷어가는 착각을 느끼기도 한다.

우리는 이 거리에서 책 속의 옛날이 아니라 그들이 썼던 물건들(골동품)을 통해 느끼고, 그들과 대화한다. 그런 물건들을 어떻게 사용했고 그 물건들이 지금 우리 시대까지 어떻게 변모해 왔을까를 생각해 본다.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에서 역사를 배우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 거리에 있는 골동품은 가만히 있는 물건이지만 우리들 마음 속에 들어오면 살아 움직이고 그 살아 움직임이 우리 머리를 자극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한다. 창출한 이미지는 우리 미래를 위해 유용하게 쓰여질 것이다. 이 거리가 살아있고, 또 살아 있어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맛이 있기 때문이다.

인사동 거리를 다녀보신 분은 조금은 알 것이다. 이 거리가 하루아침에 아파트 올라가듯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인사동이 조선시대 후기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이곳 언저리에 한 두 곳쯤은 지금의 가게 같은 것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그러나 심증만 갈 뿐, 하지만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는 지금과 같은 거리로 조금씩 변모해 왔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다가 1920년대가 되면서 그러니까 일제가 문화정책을 펴면서, 새로운 신문들이 발간되었고 그전부터 있던 서너

곳의 책방이 그 후 조금씩 늘어나서 30년대에는 꽤 많은 수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 중 제일 유명한 서점이「한남서림(翰南書林)」이라는 중인출신 지식인 백 두용(白의斗)이 운영하는 서점이었고, 지금의「통문관(通文館)」창업자인 이겸로(李謙魯)옹이 운영하던「금항당(金港堂)」이라는 서점을 비롯 몇몇이 있었을 뿐 다른 특별한 골동가게는 따로 없었다. 그 중에도 한남서림만이 옛 책이나 서화를 거래하였을 뿐, 나머지 서점들은 신간을 취급하거나 이 근처에 있는 각 중고교의 참고서 정도를 파는 그렇고 그런 서점이었을 뿐, 골동품 거리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런 거리가 해방이 되고 6·25가 지나가면서 크게 달라지게 된다. 해방 전 골동거리는 을지로, 퇴계로가 중심이었다. 이곳은 일본인 상가가 밀집해 있던 곳이기도 하지만, 일본 신간서점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옛 우리 서적을 다루는 곳은 없었지만 서화와 도자기 등 골동품은 거의 이곳에서 거래되고 있었다. 또 주인도 거의가 일본인이었고, 개중에 몇몇의 거간(중간상)이 조선사람이었을 따름이었다.

해방이 되자 일본인들이 돌아가고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좌익 및 정치관계 신간 책들이 판을 치고 있을 때 이곳 인사동은 겨우 책방 몇몇만이 지키고 있었다. 옛 책과 신간을 같이 파는 곳으로「통문관」(해방 이후 금항당을 이렇게 바꿈)「삼중당」,「남만서적」 등이 있었으며, 골동이란 거의 거래도 없었지만 골동가게다운 가게가 전혀 없었다. 이런 상태로 이러저러하다가 6·25가 터지고 전쟁이 끝나자 승자인 미국인이 일본인 대신에 판을 치게 되었다. 이 미국인이 우리 옛 그릇이나, 특히 나무로 만든 가구를 좋아하면서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 가게가 하나 둘씩 인사동 거리에 나타났고, 그들과 거래를 하면서 인사동 거리가 조금씩 골동품 거리로 변모해 갔다.

60~70년대가 지나면서부터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골동거리, 문화거리가 형성되었다. 처음 50년대에는 고작 가구 수리나 하는 고물가게 수준을 면치 못하였고, 그나마 서점만이 그 명맥을 유지하였으나 차차 골동가게가 제자리를 잡으면서 이 거리가 제 모습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때는 이 거리의 20~30%가 골동이나 책방 등 유사가게들이었고 주로 인사동 큰길에만 좌우로 가게가 뜨문뜨문 있었으며 내부 주택들은 60년대까지 일제시대의 그 모습 그대로(6·25때 불탄 것말고) 별로 달라진 게 없었다.

이런 길의 모습은 70년대까지도 한 두 곳 4, 5층 건물이 새로 지어졌을 뿐, 거의 변화가 없었다. 그러다가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집이나 길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 마치 시골의 새마을 운동 때 초가집이 싹없어지고 생철 지붕이 생겨났던 것처럼 말이다. 살기는 더 좋아졌지만 옛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70년대부터 하나 둘 현대적인 화랑도 생겨났지만 그 역할은 미비하였다.

80년대가 지나면서부터는 화랑이 특히 많아졌으며, 경제부흥과 맞물리면서 이 거리는 골동거리가 아니라 화랑거리로 바뀐 느낌이 들 정도였다. 또 거리도 그 모습을 완전히 달리했고 서점과 골동점은 점점 그 수가 줄어들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다. 80년대와 90년대를 지나면서 이 거리의 건물들이 재건축 바람이 불어 유독 4, 5층 건물이 들어서고 특히 카페와 음식점이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있어서 먹자골목이 될까봐 은근히 걱정이 된다.

어떻게 변하던지 인사동은 골동가게(이 속에는 서점, 화랑, 유사가게) 들이 현상유지를 하여야만 인사동 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 이들에게 조그만 특혜라도 주어서 이 거리를 지켜가게 해야 되련만 오히려 노점들이 근간에 서서히 침투하니 심히 걱정스럽다.

필자가 인사동에 처음 왔을 때는 1974인데 그때부터 80년도까지는 돈은 도자기 취급하는 가게에서 더 벌지는 몰라도 책방의 위세가 대단했다. 단연코 통문관이 그 중심이었지만 당대의 이름난 글쟁이, 학자, 방송인 등이 거의 출입하였다.

또 음식도 맛있는 집이 많았다. 그 때 음식점의 특징은 어느 집이 어느 계층이 간다고 하여 그 날 밤에 누가 왔다 간 것이 큰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지금 기억하건대 학자는 「선천집(宣川)」, 음악가는 「사천집(泗川)」, 방송인은 「경향집」(지금은 없어짐), 정계인은 「영희집」 등등.

그때 필자가 심부름으로 왔다갔다 자주 했던 선천집의 경우 그 당시 그곳에서 심부름하던 아가씨(10~20명 정도) 등이 모두 독립하여 이곳에서 또 다른 음식점을 운영하기도 한다. 그러던 이곳 한정식 집들이 80년 초 민정당 당사가 정일학원 자리로 오면서부터 많이 변하였다. 지금은 더 많은 음식점이 생겼지만 옛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음식점들도 있다. 그러나 근간에 새로 생긴 그 수많은 카페나 음식점은 거의 특색이 없다. 인사동에서 특색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금 몇몇 괜찮다고 생각되는 곳을 열거하면(필자의 독견) 차 맛이 그런 대로 좋은 곳으로 「심우방」「수희재」「우천」「귀천」 등이 있으며, 그 중 귀천은 가장 오래된 곳으로 고 천상병시인의 보급자리로 더욱 의미가 깊다 하겠다. 또 음식점으로는 「선천집」「사천집(이모집)」 「두레」「뿔마루」「신일집」「부산식당」「동락다주」「백로」「남원집」「베스트셀러」「완자무늬」「목포집」 등이 그나마 특색이 있다. 카페는 모두 나름의 분위기가 있기에 함부로 얘기할 수 없을 듯 하다. 필자가 자주 가는 집은 「다래」「평화만들기」「하가」 등이다.

인사동의 50~60년대에는 화랑은 전혀 없었는데 70년대가 지나면서부터 많이 생겨 지금은 그 이름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많은 화랑들이 생겨났다. 70년대 이후 기억나기는 「경미화랑」(지금은 없어졌음) 「동산방」 「동문당」 「상문당」 「한양화랑」 등이 있었고 대여화랑인 「덕수미술관」 같은 것도 있었다. 80년대에 오면서 「현대화랑」은 사간동으로 옮겼고 「공창화랑」「대림화랑」「송원화랑」「학고재」 등 무수히 많은 화랑이 생겼으며 신·고 서화를 함께 취급하였다. 특히 「학고재」는 80년대 후반에 생겼지만 서화 정찰제를 실시하여 화랑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였다. 지금은 무수히 많은 화랑과 대여화랑이 있어서 전시회의 내용을 취향에 맞게 가려 볼 수 있어서 좋지만 화랑의 특색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골동점이 인사동의 주인일 것이나 지금은 화랑에게 자리를 양보한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견재하다. 60년대부터 전통을 이어가는 곳은 거의 없고 이제는 차세대가 움직인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전의 「상고당」「아취방」「동화당」「한국미술사」「대하당」「전예원」 등등 무수히 많았지만 지금 남아 있는 것이 몇이나 될까? 60년 후부터 건재한 「한국공예」를 비롯 요즘 「고도사」「해동도자연연구소」「에나르」「장생호」 등이 그 모습을 달리하며 도자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도자기 전문 화랑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고 이제는 각 점포마다 나름의 전문성을 띠기도 한 것 같다.

인사동에 아직도 그 전통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곳이 표구사다. 우리 순수 전통표구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의 표구사는 거의 일본인 집에서 배워서 해방이 되면서 그 기법으로 발전 변모해 왔다.

몇 년 전 돌아가시기 전까지 「박당표구사」의 김용복 사장님이 유명했다고 하고, 그 분이 돌아가신 후로는 여러 유명 표구사가 존재한다. 그 중 저자가 아는 「안화당」, 「낙원표구사」, 「상문당」, 「정일표구사」, 「국제표구사」 등이 그나마 이 거리의 전문점으로 밖으로 내세울 수 있을 것이다. 최소한 인사동에서 20-30년을 살아 온 분들이다. 말이 20-30년이지 강산이 두 세 번 바뀐 세월이다.

인사동의 대표적인 가게는 뭐니뭐니 해도 책방이다. 책방이 시발이 되었고, 그 책방을 찾았던 무수한 학자와 예술가가 함께 하였기에 이곳이 더더욱 아름다울 수 있었다. 하지만 해방 후부터 60년대까지는 무주공산의 주인공이었지만 70년대가 지나 80년대가 지나면서부터 서서히 주인공이 화랑으로 넘어가고 있으며 경제는 골동 특히 도자기에 밀려가고 있다. 어떻든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는데 발 없는 물건은 떠나갈 수밖에 없다.

책은 90년대가 저물면서 컴퓨터에 모든 정보가 다 있다고 믿어서인 지는 몰라도 옛 책은 읽지를 않는다. 한문을 그동안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때문인지 이제 젊은 층은 한문 알레르기가 있는 듯 하다. 하지만 세계를 상대로 경쟁하려면 필히 동양고전을 많이 읽어 컴퓨터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알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사동은 너무나 빨리 변모해 가고 있다. 이런 인사동이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몇몇 화랑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국 아니 세계를 향해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그 이전에 가지고 있는 물건이 좋아야 하고 이 좋은 물건을 선전하고 왜 좋은 지를 알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아는 것만큼 알리고 또 가짜를 철저히 규명하여 좋은 이미지를 살려야 한다. 또 그림은 작가에 따라 가격을 형성하는 구태를 버리고 그림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는 미술관을 만들고 신통치 않은 그림은 아무리 유명한 작가라도 발을 부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젊은 좋은 작가를 주목하여 후원에 주고 독자와의 좋은 자리를 만들어 서로 토론하여 자가발전의 계기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나름의 생각을 한다.

책도 옛날 몇 백년 전의 책뿐만 아니라 작가는 어려서 배웠던 교과서부터 중요시하고 재산의 재태

크도 중요하지만 소양의 기본서를 사서 읽고, 또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사서 모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인사동은 이제 인사동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의 인사동이 아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골동 중심지가 되었다. 이름난 산의 경치와 그 맑은 공기는 그 지방 사람들만의 몫이 아니고, 모든 국민의 몫이듯이 인사동은 모든 대한민국에 사는 이의 인사동이라면 그들도 인사동을 사랑하고 지킬 자격이 있다. 모든 이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격려, 질타가 없다면 이곳이 언제 뒷골목의 쓰레기통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

지속적인 사랑을 바라며 이 글을 맺는다.

인사동 「작은 가게 살리기」 운동

인사동의 작은 가게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지켜졌습니다.

「작은 가게 살리기 운동」

작은 가게 살리기 운동의 배경 및 의의

최근 인사동에서 재건축 및 상점대형화 추세 속에서는 규모가 작은 전통문화업소의 급격한 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수십년간 한 곳에서 유지·보존 되어온 작은 가게들의 퇴출은 인사동지역의 독특한 골목, 한옥 등 역사문화 환경의 소멸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인사동길 한가운데에 자리잡은 450평 규모의 열두 가게 땅이 Y건설회사에 매각 계약됨으로써 극단적으로 노출되었다. 이에 따라 열두 가게는 2000년 3월까지 비우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다시 말해, 인사동이라는 문화 개펄의 핵심부분에서 가장 전통적인 이미지를 간직하고 있는 열두 가게 땅이 개발이익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건설회사에 의해 매입됨으로써 인사동지역의 분위기와 정취가 일거에 무너질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따라서, 도시연대와 가게주인 등 많은 시민들은 인사동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생생히 살아있는



전통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도시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인사동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작은 가게를 살리고자 운동을 진행하였다.

「작은 가게 살리기」 운동 시작과 진행과정

인사동의 현실과 열두 가게 문제의 등장

열두 가게 맞은 편에 대형복합건물이 신축되고 있으며, 종로쪽 그 아래에는 한창 신축중인 건물이 보이고 있다. 건물을 짓기 위해 이미 헐어버린 곳도 눈에 띄어 인사동 분위기를 해치고 있다. 이러한 건축행위의 이면에서 그동안 인사동의 분위기를 만들어왔던 명물 작은 가게들의 퇴출이 있었다. 열두 가게 (영빈가든, 동서표구사, 인예랑, 경남화랑, 도한사, 예성서각원, 아원공방, 청도화랑, 사보당, 보원요, 세로방, 찻집그리고)가 있는 곳은 인사동길의 한가운데(관훈동 50번지 일대) 일본인 관광객에게 명소로 꽤 알려진 영빈가든이 있는 곳이다.

열두 가게 부지의 매매와 작은 가게 살리기 운동의 공식 출범

99년 11월 5일 원 소유주는 12가게 상인들에게 열두 가게 터의 매입계약 사실을 통보하였다. 열두 가게 터를 매입한 Y건설회사가 재건축을 추진함으로써 12개의 작은 가게들이 내몰릴 위기로 이어져 작은 가게 살리기 운동이 본격화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연대와 열두 가게가 연석회의를 가지고 열두 가게 살리기 서명운동 및 열두 가게 살리기를 위한 현수막 부착을 결정하여 시행하였다. 99년 11월 7일 종로연대 발족을 계기로 시민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도시연대와 열두 가게 주인은 11월 7일 이후 주말마다 시민서명운동을 전개하였으며, 12월 1일 이후부터는 열두 가게 앞에 무인 서명대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주중에는 가게주인들이 영업을 하면서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서명을 받는 등 적극적인 자구노력과 인사동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민과 전문



가들의 적극적인 호응·참여, 그리고 언론의 관심 어린 보도 등으로 서명운동은 열기를 더해갔다. 12월 1일 사회종교인사·문화예술인·도시전문가 및 지식인 261인이 '인사동길 작은 가게 살리기를 위한 공동서명서'를 발표하였으며, 동시에 서울시장·문화부장관·대통령에게 인사동 열두 가게 살리기에 의견을 같이 한 1만 5천여 명에 달하는 시민이 서명한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1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12월 8일 영빈가든 앞마당에서 '작은 가게 살리기 운동'을 공식 출범하였다. 이날 서울시부시장, 종로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작은 가게 살리기 운동의 취지를 이해한다는 사실을 밝혀 해결의 실마리를 보여주었다.

두 가게의 퇴출과 건축허가제한 조치의 발동

1999년 12월 18일 Y건설은 열두 가게 중 두 가게(동서표구사, 사보당)를 시범적으로 법원 집달리를 통해 퇴출을 통보하였으며, 3월말에 나머지 가게들도 퇴출될 것으로서 예견되어 작은 가게 살리기 운동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99년 12월 22일 서울시와 종로구는 37,000평에 이르는 인사동 지역에 인사동 전통문화 보존·육성을 위한 문화지구의 지정과 이의 집행수단으로서 도시설계구역 지정 및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설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건축허가제한"(종로구공공제199-359호) 조치를 발표하였다.

도시연대는 "건축허가제한조치" 등 전문적인 영역으로 운동의 중심이 변화됨에 따라 단순한 서명 운동 등의 형태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각계의 도시·건축 전문가 14인을 위촉하여 "인사동기획단"(후에 '인사동사랑방'으로 개칭)을 발족(2000년 1월 20일)하여 인사동을 둘러싼 다양한 요구와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조직을 만들었다.

건축허가 예외인정과 도시연대의 대응

지주들의 지속적인 민원제기로 서울시장은 건축허가공고일 이전에 허가 신청한 4건에 대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문구를 추가하여 건축허가제한(종로구공고 제2000-39호)을 2000년 2월 25일에 재공고 하였다. 이처럼 시가 스스로 발표한 건축허가제한 원칙을 깨자 도시연대는 서울시의 건축허가 동결 바로 직전에 신청된 것을 뒤늦게 허가를 해주기로 한 조치는 원칙 없는 행정이며, 앞으로 종로구가 건축허가를 내주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서라도 막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도시연대는 인사동사랑방 회의(2000년 3월 8일)를 통해 건축허가심의 중단을 요청하는 등 다각도의 대처방안을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3월 10일 서울시장 앞으로 항문 공문을 발송하는 등 그 뜻을 분명히 하였다.

나머지 열 가게 퇴출 압박의 강화

Y건설은 건축분양 대금으로 토지 값을 치를 생각이었으나, 건축허가제한 조치로 상황이 여의치 않아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열두 가게 터 주인은 나머지 10가게에 4월 30일까지 비워줄 것을 통보하였다. Y건설회사는 열두 가게 가운데 두 곳을 쫓아내기도 했으나, 결국 개발이익이 보장되지 않자 땅을 내놓았고, 수익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S기업이 이 땅을 4월 초 인수하게 되었다.

두 가게의 재입주와 작은 가게 살리기 운동의 일단락

도시연대는 서울시 등을 통해 S기업의 C사장과 열두 가게 주인들이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역활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서로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에 S기업의 C사장과 열두 가게 주인들과 2000년 5월 1일 식사를 곁들인 대화의 자리에서 퇴출된 두 가게의 재입주를 약속하는 등 해결의 물꼬를 띄웠다.

2000년 5월 4일 퇴출된 2가게는 재입주하게 되었으며, 이에 열두 가게 주인들은 5월 22일 열두 가게 마당에 소박한 고사상을 마련하여, 지난해 12월 18일 쫓겨났던 동서표구화랑과 문방사우를 파는 사보당이 되돌아온 것의 자축과 앞으로 인사동 발전을 기원하는 잔치마당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열두 가게 상인들이 12가게는 20-30년 동안 인사동을 지켜온 터주대감이라고 말을 하자, S기업의 C사장은 12가게를 꼭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하는 등 흐뭇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열두 가게와 인사동, 지켜가야 한다.

현재 서울시는 인사동지역에 도시설계안 마련을 시도하는 등 논의가 한창이다. 이러한 논의는 '인사동을 지켜 나아간다'는 전제 하에 행정가·전문가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사동에 생활의 근거지를 가진 사람 등 인사동 주민으로 생각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발생되어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인사동 도시설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인사동사랑방을 통해 주민참여형 도시설계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작은 가게 살리기 운동의 현장이 되었던 열두 가게 터를 중심으로 주민과 시민이 참여하고 행정이 지원하며 전문가가 조정해나가는 바람직한 모범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사동, 다시 시민의 품으로

작은 가게 살리기 운동은 퇴출대상 가게들이 인사동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으며, 대부분이 문화업종에 해당되고, 대형건물 재건축으로 작은 가게들이 소멸되어 인사동 특유의 분위기와 이미지 훼손 등을 유발한다고 인식하여 인사동의 전체를 살리는 일종의 인사동 정체성 운동의 경향을 띄었다. 도시연대와 가게주인 등 시민의 힘은 개발업자에게 팔려 개발이나 보존이나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진통을 거듭하던 열두 가게가 온전히 그 모습을 지킬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인사동길의 생명은 한자리에 머물며 역사, 문화환경을 지켜온 800여 개의 작은 가게들이다. 작은 가게가 사라진 인사동은 상업주의만이 판치는 유흥소비의 거리로 전락하고 말 것이 분명하다. 그나마 살아남은 우리의 고유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인사동과 종로 북촌이 강남처럼 개발된다면 서울에서 역사문화와 전통을 우리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없을 것이다. 마치 짐령군처럼 밀려드는 부동산 개발의 힘 앞에 우리가 서울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담아내고 있는 인사동의 모습을 제대로 지켜내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인사동을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소중한 터로서 지켜 나가고자 하는 시민의 힘

이 있기에 희망이 있다. 우리는 작은 가게 살리기 운동을 계기로 다시금 촉발된 인사동 살리기의 힘을 모아 인사동을 제대로 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인사동 도시설계방향은 이러한 취지가 온전히 반영될 수 있는 주민참여형 도시설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인사동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과 시민들이 앞장서고 서울시와 종로구청이 밀어주는 방식으로 도시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가운데서 전문가그룹은 사람들에게 사랑 받는 장소로 인사동을 가꾸어갈 수 있도록 모든 지식을 활용하여 주민과 행정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인사동 그 바람직한 모습 가꾸기

인사동, 지금의 모습 그리고 미래의 모습 생각해보셨어요?

서울시는 1999년부터 4대문 안에 있는 대표적인 거리를 역사문화탐방로로 지정하고 탐방로 조성 사업에 들어갔다. 인사동길, 북촌길, 명동길, 정동길 등 전통적인 성격과 현대적인 성격의 거리 각각 4곳 총 8개 거리를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문화적 정체성과 장소성이 있는 거리를 만들어보겠다는 서울시의 노력은 평가받을 만하다. 사실 서울에서는 오랜 삶의 자취와 살아 숨쉬는 생활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방로 조성사업이 그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유는, 탐방로 사업이 관주도에 의해 겉으로 드러나는 가로환경 개선에만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4대문 안은 대규모 개발된 강남과는 달리 오랜 세월을 두고 형성된 거리경관이 그 특색이다. 여기에는 시간의 층들이 겹겹이 쌓여있고, 그 층들에 따라 크고 작은 삶들이 저마다의 크기로 살아 숨쉬고 있다. 일견 무질서하고 불결하며 혼란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삶이 뒤섞여 만들어내는 인간적 정취, 이를 뒷받침하는 인간적 공간(휴먼스케일)이 이 모든 결점들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낡고 불편하지만 4대문 안은 변함 없이 서울의 중심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끌어들이 수 있다.

서울시의 탐방로 사업은 4대문 안의 공간특성에서 오는 삶의 활기와 지속적 생명력을 오히려 위축시킬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레 형성된 경관이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경관으로 바뀌면서 거리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삶의 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한다. 최근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을 끝낸 인사동길을 통해 그 위험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

인사동길은 전통적인 성격을 부여한 4개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사업 중 가장 빨리 99년 연말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올해 10월에 완료되었다. 인사동길 가로디자인은 다양한 문화행사가 끊이지 않는 차 없는 거리의 명소화를 내걸었다. 디자인의 주요컨셉은 4가지였다. 첫째는, 한국 고유재료와 형태, 상징을 세련된 세계감각으로 디자인하여 한국의 맛과 멋을 살리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인사동의 대표

적인 큰 골목 12개, 작은 골목 12개를 상징하는 리듬을 살려 골목입구를 상징물로 장식한다는 것이다. 셋째, 차도 폭을 좁힌 여유공간에 각종 문화행사공간, 시민편의시설을 수용하겠다는 생각이다. 넷째,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한번씩 들르는 축제거리로 만들어보자는 발상이다. 이러한 디자인을 현실화한 지금 인사동길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현상들을 보고 있는가.

우선, 인사동을 명소로 만든 전통가게들이 흔들리고 있다. 도자기, 고미술, 문방사우, 표구화랑, 공방 등은 인사동의 장소성을 상징하는 대표업종이지만 사람들이 인사동을 찾을수록 어려워진다고 호소한다. 그저 인사동 분위기나 이벤트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인사동길을 메꾸어 정작 와야 할 손님들이 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인사동길 그 자체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차분히 둘러보고 즐겨야 할 작은 전통가게들은 마치 거리의 걸개그림인 듯 본말이 전도되고 있다. 인사동에서 가장 호황을 누리는 가게가 호떡을 파는 노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보여주기 위한 탐방로 조성사업은 인사동의 장소성을 훼손하고 급기야 업종변화마저 촉진하고 있다. 전통적인 상품들이 가게 안으로 밀려들어가고 길가 가게 진열대에는 어디 서나 살 수 있는 기념품들로 빼곡이 채워졌다.

어디 그 뿐이라. 거리디자인 자체도 만만치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새롭게 포장된 인사동길과 가장 잘 어울리는 건물이 최근의 신축건물들이라는 의견이 많이 제기된다. 넓고 손때묻었지만 인간적인 공간스케일과 현대적으로 탈바꿈하는 상업공간의 자기분열이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인사동길 정비는 후자 쪽으로 결정적인 지지를 보낸 셈이다.

물론 서울시의 탐방로 조성사업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아니다. 이미 인사동의 변화는 그 내부로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전통적 가게들이 새로운 변화를 수용할 준비에 등한했다. 찾아드는 내·외국인들에게 인사동의 깊은 맛과 멋을 보여줄 수 있는 자기준비도 채 이루어지지 않았다. 상품 또한 대량생산 대량 소비되면서 유행을 쫓는 일반상품과 다르게 인사동이라는 장소브랜드를 충족시킬만한 상품을 내놓지 못했다. 탐방로 조성사업은 변화를 준비하지 못한 인사동에 불확실하고도 바람직하지 않은 변화를 강요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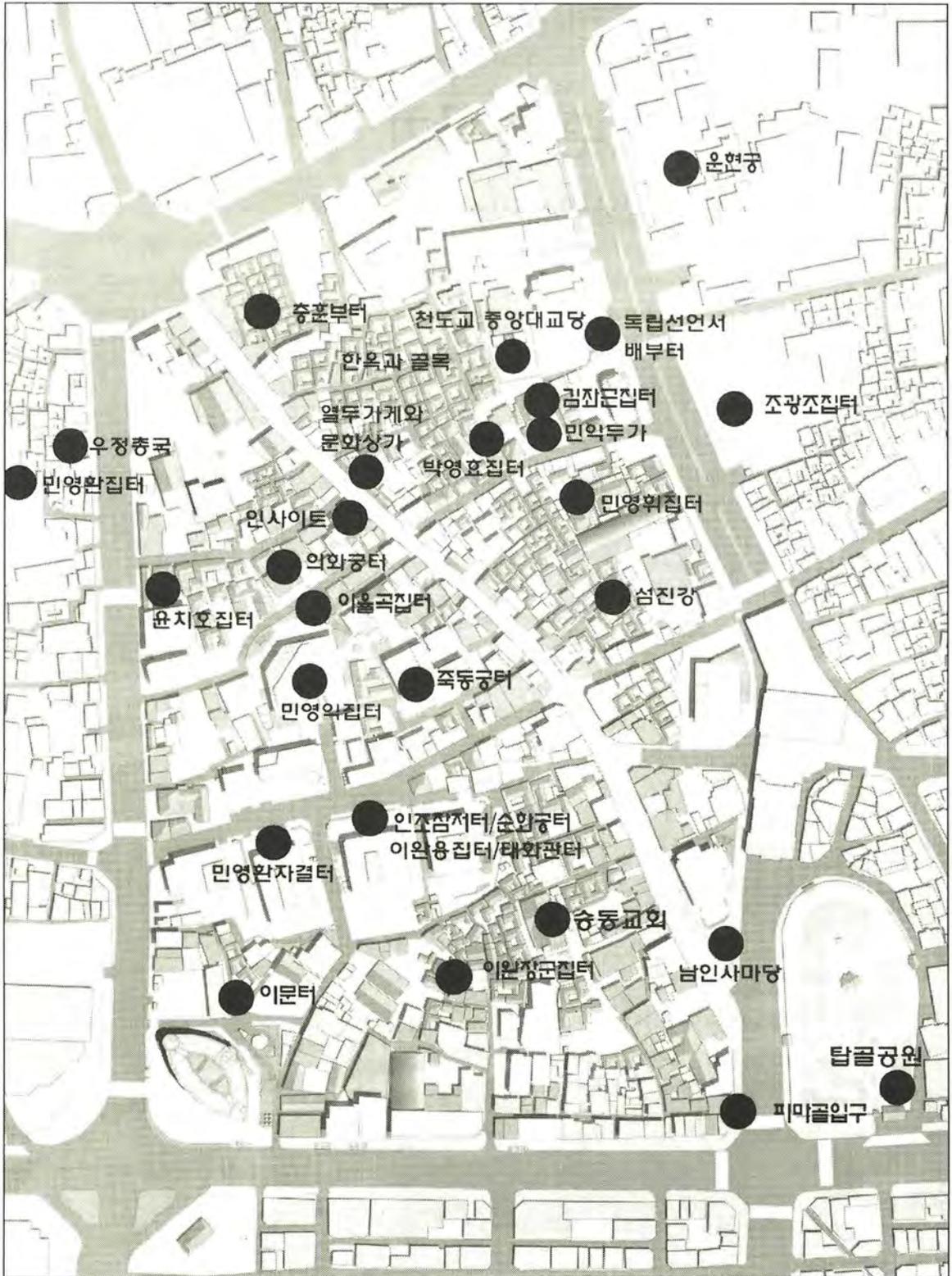
이제 인사동길을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릴 수는 없다.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찾지 못하면 인사동에 미래는 없다. 다른 상가와 별반 다르지 않는 유흥소비공간으로 변화되어갈 가능성이 크다. 인사동의 미래는 결국 문화상품의 질에 달려있다. 이 상품을 만들어낼 집단적 자구책이 나와야 한다. 다른 곳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Hand-made 인사동물건이 나와야 하며, 이 물건을 만들어낼 튼튼한 공급기반이 필요하다.

만일 인사동이 다양한 장인들, 작가들이 만들어낸 문화상품으로 가득 차고 이 상품을 문화적으로 시민들이 향수할 수 있는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면, 인사동은 거듭날 수 있다. 차없는 거리행사나 탐방로 조성이 초래한 모든 변화들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전근대적인 전통공간 인사동이 근대적인 시간흐름을 수용할 수 있는가는 인사동 내부에 달려있다.

인사동은 어떤 곳인지..자, 직접 나가볼까요?

전체탐방코스

1. 인사아트 - 열두 가게와 문화상가 - 섬진강 골목과 일대 한옥들 - 대일 빌딩(공평 재개발구역) - 승동 교회 - 남인사 마당
2. 천교도 중앙대교당 - 민익두 가 - 박영효 집터 - 충훈부 터 한옥과 골목 - 열두 가게와 문화상가 - 태화관 터 - 승동 교회 - 대일 빌딩(공평 재개발구역)



인사동 역사의 흔적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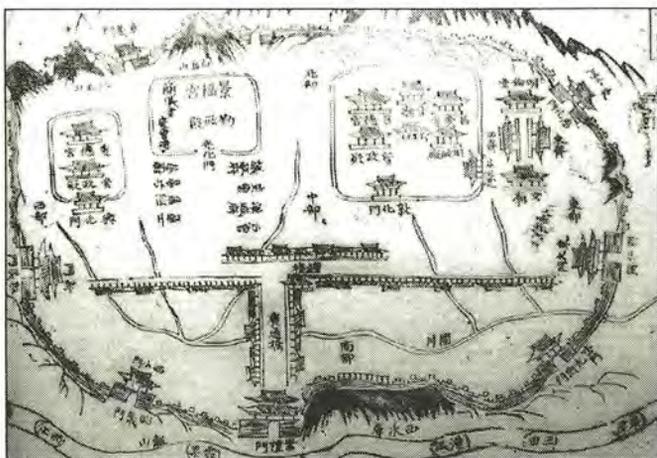
1기 3강좌 「인사동 역사문화유적지」 탐방 자료

시간을 더듬어.. 역사 속으로 출발

한양, 새로운 도읍지로 변모

지금의 서울지역은 한강을 끼고 있어 예로부터 생활의 터전이었으며 문화의 발상지가 되었다. 고려 말 이성계가 조선왕조를 창건하고 태조 3년(1394) 한양으로 천도함으로써 한양(서울)은 명실상부한 나라의 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지리적으로 보았을 때 한양은 북악, 인왕산, 남산(목멱산), 낙산(타락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형태로, 산골짜기에서 흘러내린 물은 청계천으로 모여 유역에 평평한 지형을 이루었으며, 길도 물길을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불규칙한 곡선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한양도(세부) 1770년

도시계획에 있어서는 경복궁과 창덕궁을 중심으로 좌묘우사(左廟右社)를 적용하여 좌측에 종묘, 우측에 사직단을 배치하였으며, 경복궁 앞쪽에는 6조의 관아를 배치하였다. 성곽은 지세를 이용하여 축조하였으며, 근교의 주요 산에는 북한산성, 남한산성 등을 쌓아 외침에 대비하였고, 주요지점에 도성의 출입구로서 4대문과 4소문을 설치하였다.

또한, 한양 천도 후 초기에는 운종가(雲從街)를 중심으로 상인들이 난립하였으니, 태종 12년(1412)부터 4차에 걸쳐 주 간선도로인 오늘날의 종로거리에 시전행랑(市廛行廊)을 설치하여 서울 상가의 질서를 잡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종로를 따라 동서로 길게 형성된 변화가를 중심으로 하여 각각 그 남과 북에 주택가가 형성되었으니 종로 이북을 북촌이라 하였고, 그 이남을 남촌이라 하였다. 북촌 일대는 경복궁과 창덕궁을 잇는 풍수지리상 좋은 자리로 궁궐과 조선의 중앙 관청이었던 육조와도 가까워 주로 벼슬아치를 포함해서 당대의 권문세가라 불리는 양반들이 모여 살았다.

인사동의 유래

여러 개의 자연부락으로 형성된 인사동(仁寺洞)은 대사동(大寺洞)에서 동명 유래가 되는데 댓절골·사동(寺洞) 등의 이름으로도 불려졌으며 지금의 인사동과 관훈동 사이에 걸친 마을이다. 큰 절인 원각사(圓覺寺)가 있었으므로 마을 이름이 붙여졌다. 향정동(香井洞)은 향우물골·향나무우물골·상우물골로도 불렸는데 우물 옆에 향나무가 있었으므로 명칭이 유래되었다. 이문동(里門洞)은 인사동-종로2가-공평동에 걸쳐있는 마을로 222번지에 순화궁(順和宮)의 이문(里門)이 있어서 마을 이름이 붙었으며 이문안이라고도 하였다. 승동(承洞)은 인사동과 종로2가에 걸쳐 있는 마을이고 그 옆으로는 수전동(水典洞)이, 승동의 북쪽에는 과부 다섯 명이 살았다는 오과붓골이 있었다. 낙원동과 인사동에 걸쳐 있는 부락은 원골 혹은 원동(園洞)이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대사동(大寺洞)과 이문동(里門洞), 향정동(香井洞), 수전동(水典洞), 승동(承洞), 원동(圓洞)의 일부를 합쳐 인사동(仁寺洞)이라 하였는데, 이는 관인방(寬仁坊) 대사동(大寺洞)에서 인(仁)과 사(寺)자를 취하여 지어진 것이다.

인사동을 탑동(塔洞)·사동(寺洞)·탑사동(塔寺洞)이라는 명칭으로 오랫동안 불려왔던 것은 대광명전(大光明殿)을 비롯하여 400여칸 규모의 원각사(圓覺寺)에 딸린 석탑이 유명했기 때문이다. 탑골 공원에 현존하는 이 석탑은 원각사가 낙성된 후에 세워졌고 이때부터 대사동(大寺洞)이라는 동명보다 탑(塔)과 관련된 동명으로 불려졌던 것이다.

역사와 함께 한 인사동

이 곳에서는 역사의 흐름에 따라 세도를 가졌던 사람들이 많이 살았었는데, 지금의 태화 빌딩 자리는 중종때 정국공신(靖國功臣) 구수영(具壽永)의 집이었으며, 인조의 잠저(潛邸)가 되었다. 그러나 안동 김씨의 세도정치가 시작되면서 이 집은 김흥근(金興根)(1776 ~ 1870)의 소유가 되었으며, 후에 헌종의 후궁인 경빈이씨(慶嬪李氏)의 순화궁(順和宮)이 되었다.



독립선언식 기록화

이 관직생활을 끝내고 생을 마친 곳도 대사동이었다. 또한 효종 때 북벌정책을 추진했었던 이완 대장의 집도 인사동에 있었으며, 순조의 첫째 딸 명은공주와 결혼한 김현근이 살았던 죽동궁도 이 곳에 있었다.

현재 민익두가 근처는 안동김씨가 세도가 있었을 때 김좌근이 살던 곳이며, 민비 세력이 집권하였을 때는 민영휘가 그 곳에서 살았다고 한다. 반면에 대표적인 개화파 인사로 김옥균과 함께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박영효는 지금의 경인미술관 자리에 집이 있었다. 또한 대표적인 개혁정치가 윤치호의 집도 인사동에 있었으며, 고종의 다섯째 아들 의친왕 이강도 인사동에 살았었다.

특히 승동교회는 3.1운동 때 학생대표들이 거사를 준비하던 곳으로 독립만세운동의 본거지 중의 하나로 김원벽(학생대표), 이갑성(민족대표 33인 중 1인)등이 활동했었다. 그리고 거사 전날 밤 보성사에서 인쇄된 독립선언문이 처음 배포된 곳은 천도교 중앙총부 입구의 이종일의 집이었으며, 드디어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은 태화관 2층에 모여 3.1독립선언식을 거행하였고, 학생과 시민이 주축이 된 시위대는 탑골공원에서 독립만세운동에 불을 붙이게 된 것이다.

그 외에도 애국계몽단체였던 서북학회 회관이 현재 건국주차장 자리에 있었으며, 조선일보 구사옥, 조선물산장려회 회관, 서울청년회 회관, 구 신민당 당사 등이 인사동에 자리를 잡았었다.

이처럼 인사동은 주변의 경복궁과 창덕궁, 운현궁, 탑골공원과 더불어 역사의 현장이 되었으며 우리나라 근대사의 중심에서 있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인사동 거리의 변화

일제시대에 한성부가 경성부로 바뀌면서 조선시대부터 전통적으로 주거지였던 인사동 지역에 일본인들의 상점이 생기기 시작했고 1910년대부터는 골동품을 취급하는 상점들이 가로변에 형성되기 시작한다.

1920~30년대부터는 고서적 상들이 들어서고 1930년대부터 해방 전까지는 본격적으로 고미술과 고서적 거리로 변모한다. 해방후 일제시대에 종로 이남 지역에 한정되었던 상업지역이 종로 이북까지 그 세력을 확장하면서 더욱 활성화되어, 60년대 말에는 필방과 표구점을 비롯한 고미술관련 상가가 집중되었고, 그러던 이 거리에 70년대 들어 문예진흥원 미술회관과 동덕미술관이 들어서면서 현대적 의미의 전시공간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80년대에도 계속해서 인사동은 골동품, 고미술, 화랑, 고가구와 함께 관련업종인 지업사, 화방, 민속공예품점 등이 집적됨으로써 서울의 명실상부한 전통문화와 예술의 중심지가 되기에 이른다.

※ 자료출처 : '인사동'의 역사/서울시사편찬위원회, 서울 600년사/서울시사편찬위원회

탐방코스 1 - 조선의 도읍, 한성부

조선의 한양 천도 후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 과정과 문호개방 이전까지 인사동에 살아왔던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본다.

탐방코스	설명내용
민예총(출발지점)	오리엔테이션 - 조선 초기 도읍지의 형성 과정
↓	
충훈부 터 (크라운베이커리 뒤쪽) (가나아트???)	충훈부(忠勳府)는 국가에 공훈이 있는 공신들의 포상, 공적 보존 등의 일을 맡아보던 관청으로 연산군 10년(1504년)에 일시 철폐되었지만 중종반정과 함께 다시 설치되어 현재의 관훈동으로 이전되고, 고종 31년(1894년) 갑오개혁 당시까지 지속되었다.
↓	
조광조 집터 표석 (낙원상가 북쪽)	<p>조선 중종때 도학정치를 표방하며 급진적인 정치개혁을 시도하다 사화로 목숨을 잃은 사림파의 영수 성균관 유생들을 중심으로 한 사림파(士林派)의 절대적 지지를 바탕으로 도학정치(道學政治)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그것은 국왕 교육, 성리학 이념의 전파와 향촌 질서의 개편, 사림파 등용, 훈구정치(勳舊政治) 개혁을 급격하게 추진하는 것이었다.</p> <p>그러나 사림파의 과격한 언행과 정책에 염증을 느낀 중종의 지지를 얻은 훈구파가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하는 기묘사화(己卯士禍)를 일으킴에 따라 능주에 유배되었다가 사사되었다. 그러나 후일 사림파의 승리에 따라 선조 초에 신원되어 영의정이 추증되고, 문묘에 종사되었으며, 전국의 많은 서원과 사당에 제향되었다.</p> <p>그의 사상의 핵심은 덕(德)과 예(禮)로 다스리는 유학의 이상적 정치인 왕도(王道)를 현실에 구현하려는 것이었으며, 자연질서 속에서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따뜻하고 강렬한 확신이 기초가 된 것이었다. 그러나 학문과 경륜이 완숙되기 전에 정치에 뛰어들어 너무 급진적이고 과격하게 개혁을 추진하려다가 실패했다는 점은 후대 사림들에게 경계해야 할 점으로 평가되었다.</p>
↓	

<p>탑골공원 정문앞</p>	<p>① 세조의 명에 의해 1464년에 고려때부터 내려오던 흥복사(興福寺)의 옛터를 넓혀 건립한 사찰로 연산군10년(1504)에 절이 폐사됨으로써 탑과 비석만 남았던 것을 대한제국 시절에 탁지부 고문이었던 영국인 브라운의 건의로 서구식 공원을 건립하면서 탑골(파고다)공원이라고 명명하였다.</p> <p>② 태조7년에 종루는 청운교 서쪽에 있었으며, 태종13년에 행랑의 공역을 다시 시작할 때 종로 네거리로 옮겼다.</p> <p>③ 태종 12년(1412)부터 4차에 걸쳐 혜정교에서 창덕궁 동구까지 대, 소광통교에서 남대문까지 주 간선도로에 시전행랑(市廳行廊)을 설치하였다.</p>
<p style="text-align: center;">↓</p>	
<p>피마골 입구</p>	<p>종로 1가에서 종로 6가까지 큰길 양쪽으로는 집 한두 채 간격을 두고서 좁다란 골목길이 나 있었는데, 이 길을 피마골(避馬洞)이라 하였다. 서민 상대의 대중적인 음식점들이 번창하였다.</p>
<p style="text-align: center;">↓</p>	
<p>이울곡 집터 (백상빌딩)</p>	<p>아버지는 증좌찬성 원수(元秀)이며, 어머니는 사임당 신씨(師任堂申氏)이다. 어려서 부터 어머니에게 학문을 배웠고, 1548년(명종 3) 13세로 진사시에 합격함. 조선시대 성리학의 대가. 48세에 시무육조(時務六條)를 계진하고 십만양병을 주창하였고 그 이듬해 서울 대사동(大寺洞)에서 생을 마감함.</p> <p>을사사화(1545) 이후 사림은 출사(出仕)할 수 없었으나 1565년(명종 20) 이후로 사림은 다시 정계로 복귀하기 시작하였다. 이때는 이이가 30세로서 출사 1년째 되는 해였다.</p> <p>선조 즉위 다음 해인 1568년에는 조광조(趙光祖)에게 영의정을 추서, 이황이 일시에 대제학에 취임하고 남곤(南袞)의 관작삭탈, 이황의 '성학십도(聖學十圖)' 제진, 1569년(선조 2)에는 이이의 '동호문답' 제진, 그리고 1570년에는 유권(柳權)·유인숙(柳仁淑)의 '역명신원(逆名伸冤)' 등 새로운 국면이 전개됨과 아울러 사림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그러나 이렇듯 상황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구습이나 폐풍은 일시에 시정될 수 없었고, 근본적인 개혁없이 유림의 활동은 특별한 설시(設施)를 볼 수 없었다. 더구나 1575년부터는 동서의 분당으로 인하여 사림은 분열되고 무위한 정쟁에 휘말리게 되니 연산군 이래의 폐법은 고쳐지지 않은 채 국가의 기강은 무너지고 민생의 곤고는 극도에 달하였으며, 군사적으로도 무력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p> <p>이이는 '동호문답' 에서 가장 큰 폐법으로 다섯 가지를 들어 설명하였는데, 그것은 당시의 시대상과 민중의 질고(疾苦)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이었으며, 그는 국세조사와 같은 전국적인 규모의 조사를 실시하여 실정에 맞게 폐법을 개혁하여야 한다고 하</p>

<p>이율곡 집터 (백상빌딩)</p>	<p>였다.</p> <p>그밖에도 이이는 '만언봉사' · '성학집요' 및 수많은 상소문을 통하여 정치 · 경제 · 문교 · 국방 등에 가장 절실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이이는 국정을 도모함에 있어서도 일개인이거나 일부 지도층으로부터 하향식으로 수행될 것이 아니요, 언론을 개방하여 국민은 다 말할 수 있고, 위정자는 중지(衆智)를 모아야 한다고 보았다.</p> <p>이이에게 있어서 성리학은 단순한 사변적 관상철학(觀想哲學)이 아니었다. 성리학의 이론을 전개하는 이이에 있어서 항상 강조되는 것은 시세(時勢)를 알아서 옳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니, 언제나 '실공(實功)' 과 '실효(實效)' 를 강조하였다.</p>
↓	
<p>인조 잠저터, 순화궁터 (태화빌딩)</p>	<p>중종반정에 가담하여 정국공신(靖國功臣) 구수영(具壽永)이 살았던 곳으로 그 뒤 연산군의 총복이었다고 하여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p> <p>그의 손자 구사맹(具思孟)은 선조 때 신진사류들의 원로사류에 대한 탄핵이 심하여 대부분의 사류들이 뜻을 굽혔으나 끝내 신진을 따르지 않아 자주 탄핵을 받았다.</p> <p>왕실과 인척이면서도 청렴결백하고 더욱 근신하여 자제나 노복들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였다.</p> <p>인조(仁廟)의 생모인 인헌왕후(仁獻王后, 1578~1626)는 구사맹(具思孟)의 다섯째 딸이었다. 1590년(선조 23) 선조의 다섯째 아들인 정원군(定遠君)과 혼인하여 연주군부인(連珠郡夫人)으로 봉하여졌다가, 인조반정으로 인조가 즉위하자 부부인(府夫人)에 진봉(進封)되고 궁호(宮號)를 계운궁(啓運宮)이라 하였다. 1632년(인조 10) 이조판서 이귀(李貴)의 주청으로 정원군이 원종으로 추존됨에 따라 인헌왕후로 추존되었다. 이후 안동김씨의 권세가 커지면서 김흥근(金興根, 1796~1870)의 소유가 되었다가 현종의 후궁 경빈이씨의 순화궁(順和宮)이 되었다.</p>
↓	
<p>이완 장군 집터 (하나로빌딩 남쪽)</p>	<p>임진왜란 때 육전(陸戰)의 명장이었던 이수일(李守一)장군의 아들로 칼날같이 강직한 사람으로 함경도병마절도사 · 어영대장 · 수어사 · 포도대장을 거쳐 우의정에 올랐다.</p> <p>훈련대장이 되었던 1653년에 효종의 복벌계획에 맞추어 신무기의 제조, 성곽의 개수 및 신축 등으로 전쟁준비를 완료한 바 있으나 효종의 별세로 계획이 중단되고 말았다</p>
↓	

<p>이문터 (이문설령탕 앞)</p>	<p>원래 이문(里門)은 마을로 들어가는 어귀에 세워놓은 문을 뜻하는 말로, 주로 도적을 막기 위해 설치했다고 함. 영조때 '잠룡지는 어물전(魚物廩)의 이문(里門) 안에 있는데 인조(仁廟)가 어렸을 때에 놀던 곳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얻게 된 것이다.' 라고 하여 그 근처에 이문(里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p>
<p>↓</p>	
<p>죽동궁터 (홍익빌딩 근처)</p>	<p>순조의 장녀 명온공주(明溫公主)와 결혼하여 동녕위(東寧尉)가 된 김현근(金賢根)이 생전에 살았던 집</p>
<p>↓</p>	
<p>김좌근 집터 (민익두가 근처)</p>	<p>순조비 순원왕후(純元王后)의 오빠. 1853~1863년 영의정에 세 번이나 보직된 안동김씨의 중심인물</p>
<p>↓</p>	
<p>운현궁 사적 제257호</p>	<p>운현궁(雲峴宮)은 운현 즉 지금 종로구 운니동에 있던 흥선대원군의 사제(私第). 운현궁은 한국근대사의 유적 중에서 흥선대원군의 정치활동의 근거지로서 유서 깊은 곳이다.</p> <p>흥선대원군은 1863년에 철종이 죽고 고종이 즉위하자 대원군에 진봉되었으며, 이어 대왕대비의 수렴첨정이 선포되자 정책결정권을 받아 섭정을 맡았다. 안동 김씨의 주류를 숙청하는 한편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정치기강을 수립했다. 또한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와 삼군부를 두었으며, 의복제도의 개량·세제개혁·사창 실시 등을 행하였다. 그러나 왕실의 위엄을 상징하기 위하여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부족한 재정을 위한 원납전을 강징하여 백성의 생활고를 가중시켰다. 고종 3년(1866) 제너럴셔먼 호사건·병인양요, 1871년 신미양요 등이 일어났으며 천주교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가하고, 척화비를 세우는 등 쇄국정치를 단행하였다.</p> <p>고종10년(1873) 그의 섭정에 불만을 품은 민비(閔妃)의 조종으로 탄핵을 받아 은퇴하였으며, 그 후 몇 차례 재집권하였으나, 곧 실각하고 만다.</p>
<p>↓</p>	
<p>섬진강(도착지점)</p>	

탐방코스 2 - 감오경장과 3.1운동

근대문물과 신지식이 밀려들어오고, 해외열강들의 세력다툼 속에서 혼란스러웠던 때, 근대화의 발자취와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3.1운동의 정신을 되돌아 본다.

탐방코스	설명내용
민예총(출발지점)	오리엔테이션(공통)
↓	
운현궁	<p>운현궁(雲峴宮)은 운현 즉 지금 종로구 운니동에 있던 흥선대원군의 사저(私第). 운현궁은 한국근대사의 유적 중에서 흥선대원군의 정치활동의 근거지로서 유서 깊은 곳이다.</p> <p>흥선대원군은 1863년에 철종이 죽고 고종이 즉위하자 대원군에 진봉되었으며, 이어 대왕대비의 수렴 첨정이 선포되자 정책결정권을 받아 섭정을 맡았다. 안동 김씨의 주류를 숙청하는 한편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정치기강을 수립했다. 또한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와 삼군부를 두었으며, 의복제도의 개량 · 세제개혁 · 사창 실시 등을 행하였다. 그러나 왕실의 위엄을 상징하기 위하여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부족한 재정을 위한 원납전을 강징하여 백성의 생활고를 가중시켰다. 고종3년(1866) 제너럴서먼호사건 · 병인양요, 1871년 신미양요 등이 일어났으며 천주교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가하고, 척화비를 세우는 등 쇄국정치를 단행하였다.</p> <p>고종10년(1873) 그의 섭정에 불만을 품은 민비(閔妃)의 조종으로 탄핵을 받아 은퇴하였으며, 그 후 몇 차례 재집권하였으나, 곧 실각하고 만다.</p>
↓	
민영휘 집터 (민익두가 근처)	1877년 정시문과에 급제한 이후 정계에 등장, 1884년 김옥균 등의 갑신정변을 진압하였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청군(淸軍)에게 지원을 요청, 그 진압에 힘썼다.
↓	
박영효 집터 (경인미술관)	고종 9년(1872) 철종의 딸 영혜옹주와 결혼하여 금릉위(鎭陵尉)에 봉해졌다. 개화파의 대표적 인사로 개화당(開化黨) 조직 및 갑신정변을 일으켰으나 실패로 돌아가 일본으로 망명했다 1894년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나자 일본정부의 주선으로 입국, 대원군을 축출하고 실권을 장악한다. 그러나 민씨 일가와 일본의 견제(민비 시해 음모)

<p>박영호 집터 (경인미술관)</p>	<p>로 다시 일본으로 망명한다. 1907년에 귀국하여 공내부 대신이 된 그는 일본의 강제적 고종 양위에 반대하여 제주도에 유배되었으나 1910년 일본으로부터 작위를 받고 여러 관직을 지내기도 했다.</p>
<p>↓</p>	
<p>민영익 집터 (홍익빌딩 근처)</p>	<p>조선 후기의 문신으로서 민씨척족(閔氏戚族)의 거두 요직을 겸직하면서 민씨 세력을 유지하는데 전념하였으며, 결국 1884년 갑신정변 당시 우정국 낙성식 축하연에 참여하였다가 중상을 입고 말았다</p>
<p>↓</p>	
<p>윤치호 집터 (신한은행 종로지점)</p>	<p>대한제국대의 정치가 민족운동가. 독립신문의 사장과 만민공동회 회장으로 자주국 권운동과 자유민권운동 및 자강 개혁운동을 통한 자주적 근대화운동을 주도하였다. 1905년 을사조약이 관직을 사퇴하고 자강회를 조직, 회장으로 추대되어 국민의 자주자강 정신과 능력을 기르는 데 힘썼다.</p>
<p>↓</p>	
<p>우정총국 (체신기념관) 사적 제213호</p>	<p>근대식 우편제도를 처음 국내에 도입한 개화기의 한 상징물. 우정국은 1884년 3월 27일 설립되었다. 건물은 전통 전장감지에 세워졌다. 갑신정변이 일어난 혁명적 장소로 정변이 실패한 후 우정국은 파괴되었고 그 기구는 폐지되어 버렸다. 그 이후 이 장소에는 한어(漢語)학교가 들어서기도 했고, 이어 중등학교가 사용하기도 했으며, 1970년 사적으로 지정되었고 체신부가 인수, 현재는 체신기념관으로 전용되고 있다.</p>
<p>↓</p>	
<p>민영환 집터 (조계사 경내)</p>	<p>1905년 일제에 의해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이완용 등 을사오적의 처형과 조약의 파기를 요구하는 상소를 올렸다. 그러나 상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운이 이미 기울어졌음을 깨닫고 죽음으로 항거하여 국민을 각성하게 할 것을 결심하고 국민과 주한외교사절들 앞으로 유서를 남기고 자결함. 현재 한미은행 북쪽 길가에 있었던 친구 이완식의 집은 그가 자결한 장소로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p>
<p>↓</p>	
<p>보성사터 (조계사)</p>	<p>① 보성중학교 내의 인쇄소로 3.1독립선언문이 인쇄된 곳이다. 보성사는 경영난에 빠져있는 보성전문(普成傳門), 중 · 소학교를 인수한 천도교에서 운영하였다. ② 보국안민을 목적으로 하는 천도교에서는 1910년의 한일합병(韓日合併) 이후 조국광복의 이념이 강하였으며, 제3세 교조 손병희(孫秉熙)는 민족지도자의 교육 및</p>

<p>보성사터 (조계사)</p>	<p>교인들의 신앙심과 민족의식 고취에 힘을 썼다. (3) 3.1운동은 처음에 종교단체와 학생들에 의해서 각각 독자적으로 추진되었다. 그 까닭은 일제가 무단정치를 실시한 이래 국내의 사회 단체 대부분이 해체되었지만, 종교단체와 교육기관은 비교적 활동이 자유롭고 조직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뜻 있는 애국지사들은 종교에 의지하거나 교육에 힘쓰면서 국권회복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들 단체중에서 조직력이 강한 천도교와 기독교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독립운동의 계획을 세우다가, 후에 서로 다른 계통의 활동상황을 알게 되자 이를 통합, 단일 추진 계획이 세워지게 되었다.</p>
<p>↓</p>	
<p>독립선언서 배부터 (천도교중앙총부 입구)</p>	<p>보성사 인쇄소에서 인쇄된 독립선언서는 전날 이종일 집에 보관하였다가 28일 아침부터 여러사람에게 분배하여 전국 각지에 전달하였다.</p>
<p>↓</p>	
<p>이완용 집터/태화관 (태화빌딩)</p>	<p>순화궁 이전 후에는 빈집이었다가 이완용(李完用)의 소유가 되어 친일파의 교유장소로 이용되었다. 이완용이 이사를 가고 태화관(泰和館)이 들어섰는데, 이 곳은 장안의 부호와 총독부 관리들이 즐겨찾던 곳이었으며, 3.1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의 장소로 선택하였다. 후에는 태화관이 헐리고 기독교 감리교 여자교육기관인 태화회관이 설립되었으나 공평지구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현재 12층 높이의 태화빌딩이 들어섰으며, 3.1 독립선언유적지 표석이 세워져 있다.</p>
<p>↓</p>	
<p>승동교회</p>	<p>1919년 3.1운동 때 학생대표들이 거사를 준비하던 곳으로 김원벽(학생대표), 이갑성(민족대표 33인중 1인)등이 활동했던 독립만세운동의 본거지중의 하나이다.</p>
<p>↓</p>	
<p>탑골공원</p>	<p>3월 1일 오후 2시 정각이 되자 파고다 공원 팔각정 단상에는 10년만에 태극기가 내걸리어 모인 군중들의 감격과 흥분은 절정에 달했다. 드디어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는 역사적인 식전이 개막되었다. 이 식전에 33인의 민족대표가 예정을 바꾸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경신학교 졸업생 정재용(鄭在鎔)이 단상에 올라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다. 낭독이 끝날 무렵 군중속에서 '대한독립만세' 소리가 터져 나왔다.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식을 마친 학생과 군중들은 공원을 나와 시위행진을 하였다. 이 시위행진 대열은 학생·신사·상인·농민 등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가담하여 서울 시가를 누비면서 독립만세를 외쳤다.</p>

<p>의화궁터 (성보갤러리)</p>	<p>의친왕(義親王) 이강(李綱) 집터. 고종의 다섯째 아들로 1919년 대동단(大同團)의 최익환(崔益煥) 등과 협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탈출을 기도, 만주 안동(安東)에서 발각, 송환되었다. 그 뒤 여러 번 일본 정부로부터 도일을 강요받았으나, 거부하고 끝까지 배일(排日)정신을 지켰다.</p>
<p>↓</p>	
<p>서북학회 회관터 (건국주차장)</p>	<p>서북학회(西北學會)는 1908년 1월 안창호(安昌浩), 이갑(李甲) 등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애국계몽단체로 월보간행, 순회강연 등을 통하여 민중을 계몽하고 일본의 침략을 배격하였다. 회관건물은 한 때(1918~1922) 보성법률상업학교(고대전신(高大前身))가 사용하다가 오성(五星)학교 후신인 협성학교가 사용하였고 광복 후에는 건국대학에서 사용 1976년에 도시계획으로 헐리면서 건국대 구내로 이전되어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p>
<p>↓</p>	
<p>섬진강(도착지점)</p>	

인사동의 특색 있는 문화 이야기

2기 3강좌 「인사동 문화업소」 탐방

알고 나면 더 재미있는 인사동의 애깃거리와 볼거리들.

● 골동품, 고미술

인사동 골목하면 먼저 골동품과 고미술품을 생각하게 된다. 한 집 건너 표구점과 화방. 그리고 골동품상이 모여있는 이 골목에서는 한 점에 수억 원을 호가하는 국보급 유물에서, 근대조선 유명화가의 산수화, 또는 무명 동양화가의 모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미술품이 거래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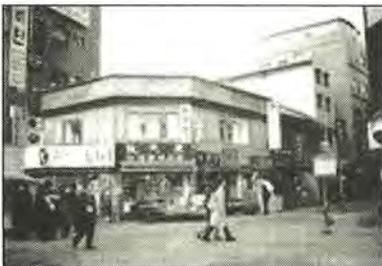
흙으로 빚은 원통형 굴뚝, 술을 끓여 반치는 삼단 짜리 옹기, 칠이 벗겨진 함 등 인사동에 가면 한국 특유의 전통적인 진풍경을 만날 수 있다.

인사동 고미술품 거리의 역사는 80여 년에 이른다. 한국 전쟁이 끝난 혼란 속에서 미군 고위급들이



나 주한 미군대사가 골동품을 여러 점 사들이기도 했다는데 당시만 해도 길가의 좌상에서 파는 것이 대부분 '진품'이었기 때문에 안목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었다고 한다.

그렇게 인사동 일대가 국내외에 알려지면서 활기를 띠자 골동품상들도 자연 늘어나게 됐다. 그때 생겨나 지금까지 남아있는 몇몇 점포는 30~ 50년 가량의 역사를 갖고 있다.



현재 인사동에서 고미술품을 거래하는 점포는 70군데이다. 거래되는 고미술품은 옛 그림이나 도자기, 목기, 금속품이 대부분이며 통일신라시대의 토기에서부터 조선시대 백자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갖추고 있다.

고미술상은 또 각각 고가구, 미술품, 소품류를 전문으로 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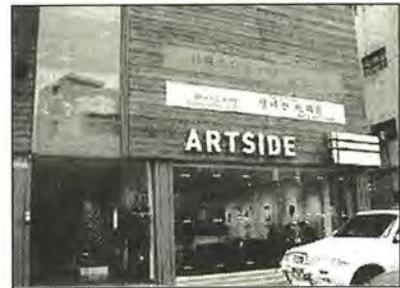
곳으로 나뉘는데 특별하게 어느 가게의 물건이 좋고 고가품이라는 기준은 없다. 가격은 1만원짜리 소품부터 수억원대를 호가하는 귀중품까지 다양하다.

-<http://www.itourism.co.kr/tourkorea/kn22h.htm>

● 화랑

60년대 말에는 필방과 표구점을 비롯한 고미술관련 상가가 집중되었고, 그러던 이 거리에 70년대 들어 문예진흥원 미술회관과 동덕미술관이 들어서면서 현대적 의미의 전시공간이 마련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화랑인 현대화랑(현 갤러리 현대)을 비롯, 동산방화랑, 선화랑 등 본격적인 상설전시 판매장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박수근, 김환기, 이중섭, 장욱진 등의 그림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인사동은 바야흐로 서서히 미술 문화거리의 기틀을 잡게 되었다.

동양화 전문화랑인 박주환(朴周煥)의 동산방(76년개관), 미술애호가 김창실(金昌實)의 선(選)화랑(77년개관)등이 이 시기의 대표적 화랑의 역할을 해냈다. 그리고 80년대에도 이호재(李皓宰)의 가나화랑(83년개관), 송원화랑에서 이름을 바꾼 노승진의 노화랑 등이 새로 문을 열고 동시에 계속해서 인사동은 골동품, 고미술, 화랑, 고가구와 함께 관련업종인 지업사, 화방, 민속공예품점 등이 집적됨으로써 서울의 명실상부한 전통문화와 예술의 중심지가 되기에 이른다.



● 표구

표구사는 표구를 하는 곳으로서 표구란 서화에 종이나 비단을 발라 꾸미고 나무 등의 장식을 써서 족자, 액자, 병풍 등을 만드는 일을 말한다. 한국의 표구법은 삼국시대에 중국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것으로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장황(裝潢)이라고 하기도 했으며, 경국대전 대전회통 工典의 京工匠條에는 배첩(裱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일본식



용어인 표구(表具)로 사용되고 있다.

인사동에 표구사들이 밀집하기 시작한 것은, 일제시대부터 이미 인사동 지역에 가까이 살던 동양화가들의 인사동 출입이 잦아지고 관련되는 일감이 많아지게 된 것이 배경이라고 한다. 또한 1960년대 말 당시 인사동에는 표구사를 대상으로 해서 액자를 운반하는 이가 7명 있었다고 하는 사실에 근거해 볼 때, 근대식 화랑이 입지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동양화를 중심으로 한 그림의 판매가 활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래에 이르러 서양화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동양화의 경우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표구사의 기능은 예전보다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 민속공예품

민속공예는 일반적으로 수공업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며, 한국에서는 민속공예와 비슷한 의미로 방물, 토산, 물산 등의 용어들이 많이 쓰였다. 즉 민속공예는 실용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의미인데 실용적인 가치보다 세공이나 장식성과 같은 예술적인 가치에 더 큰 비중을 둘 때 이것은 민구의 차원을 떠나 공예품이 된다. 이러한 공예품 중에서도 민속공예는 일반 민중들이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공예품을 대상으로 하므로 상층계급을 위한 희귀한 공예품을 주요대상으로 하는 미술사에서의 공예와는 다르다.

▽ 목공예

〈예목〉에서 알아본 목공예 이모저모

■ 목공예란

“목공예란 나무를 이용해서 형태를 만드는 것. 장승, 사람의 모습, 호랑이, 새 등 나무로 어떤 형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고대에 나무로 만들어서 사용했던 것도 목공예이다. 지금의 예술적인 부분이 옛날에는 다 생활했던 것이다. 생활 속에서 사용했던 것. 지금 옛 것의 아름다움을 예술적으로 승화한 것이 모두 목공예에 속한다.

고려청자도 하나의 음식 담은 용기였다. 궁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신경 써서 아름답게 만들었던 것이 지금에 와서 예술품이 된 것이다.

장승도 마을사람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나쁜 것은 물리치고 생활을 편하게 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목공예란 예전에는 생활에 다 쓰이던 것이지 특별한 것이 아니다.”

■ 목공예의 유래

“언제부터 목판화가 시작되었냐?” 라고 할 때 특별히 어느 시대라 할 수 없다. 굳이 묻는다면 고려

시대부터 성행하지 않았을까 한다. 선사시대에도 돌, 뼈, 벽에도 했었다. 그것도 각의 문화이다.

■ 목공예의 특성

“목공예는 나무를 이용하기 때문에 따뜻한 느낌이 든다. 또한 공기정화의 효과가 있으며 몸에 해롭지 않다. 금속보다 부드러운 면이 있고 생활에 있어 공기를 순화시켜 준다. 옛날에 나무 뿌리 먹고살았던 사람도 있고, 소나무 밑에서 살면 병도 치료한다고 했다고 한 것처럼 몸에 좋다. 사람과 같이 생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죽은 물질보다 사람과 비슷하다. 나무는 숨을 쉰다. 말라서 있지만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다.

나무는 느티나무, 향나무를 많이 쓰고 탈은 오리나무를 쓴다. 나무의 값이 다르고 제작하는 부분이 달라 가격을 매기기 어렵다. 대개 3,000원부터 7~8백만원까지 있다.”

■ 인사동에서의 목공예

“우리가 81년에 처음 인사동에 들어왔다. 목공예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약 20년 전부터였다. 서각을 직접 하는 집이 81년 당시 5군데였다. 지금은 3군데만이 남았다. 한 군데는 서각만 하고 두 군데는 전체적 목공예를 한다. 현재 인사동 문화를 만들었던 가게들이 많이 떠났다.

이제 인사동에는 직접 목공예품을 제작하는 가게들은 많이 떠났고 물건을 받아서 파는 가게들이 늘어나거나 업종들도 많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도자기를 굽고 공예품을 만들고 하는 가게들이 운영되었는데 지금은 순전히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게를 얻어 운영하는 형태이다.”

■ 인사동에 목공예를 배울만한 곳은

“인사동에는 없고 개인적으로 사서를 받아야 한다. 인사동에 그럴만한 곳이 없어 아쉽다. 교육적 차원이 없다. 회관, 목, 금속, 도자기, 공예와 관련된 현장교육이 꼭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지원이 있어야 한다. 만드는 것을 직접 보고 함께 만들어도 보고 같이 호흡하고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 팔 때 가까운 마음이 드는 물건을 만들어야 인사동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인사동에 대한 바람 “인사동에서 공예품들이 기계화되어 가고 획일화, 규격화되는 것이 안타깝다. 인사동에서 직접 작업하면서 우리 것을 보급, 발전, 유지시키고자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



어졌다. 문화의 거리보다 관광의 거리로 바뀌었다. 많이 저지하려 했지만 잘 안됐고 옛날부터 갖고 있던 인사동의 모습이 없어진 것이 안타깝다. 인사동은 한국 전통문화의 장소라고 이야기 하지만 방문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 고유의 맛이 없어졌다 한다.

옛날에 인사동에 있다고 하면 높게, 수준 있게 보았으나 지금은 하나의 상인으로 본다. 그만큼 정서적으로 예술적 기품이 있는 곳이었다. 인사동을 막 대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의 전통문화가 있었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 조상이 가지고 있던 혼이 있었기 때문이다.”

● 다도

■ 차의 유래

차의 유래는 중국의 차를 신라의 선덕여왕이 마셔오다가, 흥덕왕 3년(828) 신라의 김대립이 당나라에서 차씨를 가져오자 지리산에 심게 하였다.

그 뒤 차 문화는 고려시대에 한참 흥하였다가 배불사상으로 주춤하였으며 6.25뒤로 커피가 들어와 뒤로 밀려났다. 그러나 요즘 다시 우리 차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차는 그저 음료로 마시는 데에 그치지 보다 몸에 보탬이 되는 약용으로 마셨고 몸을 보호하는 양생의 선약으로 여겼다.



■ 차의 의미

일반적인 의미의 차는 두 가지로 해석된다.

첫째, 차나무의 어린잎을 따서 만든 마실 거리의 재료이다. 즉 손질된 찻잎, 혹은 찻가루나 찻덩이를 말한다. 이를 마른차 혹은 찻감이라고 구분해 부른다.

차는 제조법이나 모양, 잎을 따는 시기에 따라 분류된다. 발효차, 비발효차, 후발효차는 발효에 따른 차의 분류이며 덩이차, 잎차, 섞은차, 가루차 등은 모양에 따른 분류방법이다.

또한 차는 차잎의 여리고 굳은 정도에 따라 그 품질이 세차, 중차, 조차로 구분된다.

이에 비해 차나무의 잎이 아닌 것을 재료로 해서 음료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대용차라 부르는데, 그 종류로는 감잎차, 두충차, 덩굴차, 솔차, 모과차, 생강



차, 유자차 등이 있다.

이러한 대용차는 차가 쇠퇴하기 시작한 조선중엽 이후에 쓰이게 되었는데, 대용차와 구분하기 위하여 차를 적설차, 참차, 고유차, 전통차 등으로 대신 부르기도 한다.

둘째, 마른차가 물과 어울려서 만들어진 마실 거리인 찻물을 뜻한다.

찻물로는 잎차나 떡차를 우리거나 끓인 맑은 차탕과, 가루차에 뜨거운 물을 부어 휘저어 마시는 탁한 차유가 있다.

차(茶)는 명(茗) 또는 천이라고 썼다. 우리는 茶를 '차' 혹은 '다'로, 중국은 차(cha, 지방에 따라서는 te라고도 함)로, 일본은 짜(jya)로 발음한다.

■ 기본 행다법

오늘날 차를 끓이는 방법은 잎차를 우리는 팽다법, 말차에 숙수를 부어 휘젓는 점다법, 차를 물에 넣어 끓이는 자다법이 있다. 땡다, 점다, 자다를 모두 뜻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전다(煎茶)라는 말을 흔히 썼으며, 행다(行茶)는 보다 넓은 의미로 차를 끓여서 대접하고 마시는 일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① 기본 팽다법

물 끓이기 ⇨ 그릇 행구기 ⇨ (숙수 식히기) ⇨ 차 넣기 ⇨ 숙수 붓기 ⇨ 기다리며 잔 비우기 ⇨ 따르기 ⇨ 마시기 ⇨ 재탕 우려 마시기 ⇨ 마무리

② 기본 점다법

물 끓이기 ⇨ 차사발 데우기 ⇨ 차 넣기 ⇨ 숙수 붓기 ⇨ 휘젓기 ⇨ 마시기

■ 차 마시는 법

차가 손님 앞에 다 놓여졌으면 팽주는 손님을 향해 목례를 하거나 “차 드십시오”라고 권한 후 같이 마신다. 두세 번으로 나누어 마시되 머금어 굴리듯이 차가 입 안에 고루 배이게 마시면 탄닌의 살균작용과 불소성분으로 인하여 치아에 좋고 풍미를 한층 오래 즐길 수 있다.

잎차를 마실 때는 잔 받침은 그대로 두고 두 손으로 잔을 들어 오른손으로 잔을 잡고 왼손으로 잔을 받친다. 잔이 크면 두 손으로 감싸 쥘다. 말차를 차 사발에 점다하여 마실 때 손님이 많으면 다같이 마시지 않고 팽주가 주는 대로 마신다. 점다후 오래 지나면 유화가 사그라지기 때문이다. 차 사발은 두 손으로 안전하게 감싸쥐고 천천히 한꺼번에 마신다.

또 차를 마실 때는 소리가 나지 않아야 하며, 차를 다 마시고 나서 찻잔에 남은 향기를 맡고 잔을 내려놓거나, 잠시 기다렸다가 입안에 남은 차의 뒷맛을 감상하는 것도 차의 풍미를 아는 일이다. 차는 오감(五感)으로 마신다고 한다. 귀로는 찻물 끓이는 소리를, 코로는 향기를, 눈으로는 다구와 차를, 입으로는 차의 맛을, 손으로는 찻잔의 감촉을 즐기기 때문이다.

인사동의 수공예 업소

3기 3강좌 「인사동 작은 가게」 탐방

인사동의 작은가게...어떤 가게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수공예는 전통공예기법과 다양하고, 새로운 공예기법이 더해져 발전되어 실용적인 생활필수품부터 하나의 예술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다. 염색·직조·패치워크·아플리케·펠트·퀼트 및 오브제 등 섬유를 이용한 섬유공예, 종이회화·종이판화·종이조각 등 종이를 이용한 종이공예, 지승공예·색지공예·지장공예·후지공예·지호공예 등 한지를 다양하게 이용한 한지공예, 가구나 생활용품 등을 나무로 제작한 목공예, 비녀, 장도 같은 장신구부터 목가구를 보강하는 금구, 화폐, 활자, 촛대 등 금속을 이용한 금속공예, 흙에 물을 붓고 성형하여 바람에 건조시킨 후 불에 구워 완성하는 도자 공예, 유리를 이용한 유리공예, 매듭을 이용한 매듭공예, 최근 팔찌나 목걸이 같은 장신구에 많이 사용되는 구슬공예 등 다양하고 많은 공예기법들은 현

대 미술의 발전과 함께 표현 영역이 무한대로 발전하여 다양한 재료와 다양한 표현양식으로 우리의 생활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 주고 있다.

■ 금속공예점

운현공방, 장우원, 아원공방, 제3공간, 헤돋이, 은초롱

■ 직물

꼬세르(의류), 우리세계, 곤의 딸

■ 목공예점

예성서각, 예목, 한국서각

■ 기타

국제자수원(자수), 원주한지(한지), 인예랑(전각), 박영숙요(도자기), 박당표구사(표구), 명신당필방(필방)

인사동 생각하기

4기 3강좌 「인사동 가로 및 골목과 한옥」 탐방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사동은 어떤 모습입니까?

1. 인사동길, 걷기에 즐거운 곳인가?

인사동을 남과 북으로 물 흐르듯이 지나가는 인사동길이 작년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좋다. 나쁘다. 참 다양한 소리가 들립니다. 직접 걸어보면서 느껴볼까요?

집중적인 공격을 받는 것은 거리에 양렬로 늘어선 거대한 물확(위에 작은 웅덩이를 만든 돌덩이)과 돌벤치들이다. 16일 낮 인사동을 찾은 로버트 앤더슨 영국 대영 박물관 관장은 담배꽂초가 쌓인 물확과 돌의자를 보고는 “너무 큰 재떨이”라고 조크를 했다. 동행한 김홍남 이화여대 박물관장은 “그 좁은 길에 큰 돌덩이를 너무 많이 설치한 것은 도시 건축의 기본을 무시한 처사”라며, “인사동에 이어 경복궁 앞길 등에도 설치되고 있는 이 돌의자들이 옛 풍취를 파괴하는 서울의 흉물이 될까 우려된다”고 했다. 인사동에서 20여 년째 영업하고 있는 한 화랑 주인은 “돌벤치를 보고 ‘묘 앞에 놓는 상석 같다’는 말이 나올 만큼 인사동 경관과 조화를 못 이룬다”며, “이미 쓰레기가 물확 위에 쌓이고 있고, 밤의 취객들이 돌벤치의 고객이 되고 있으며, 일부 상인은 그 위에 좌판까지 차리고 있다”고 전했다. 가로 포장 등 외형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미술애호가인 김재준 국민대 교수는 “바닥에 간 점토벽돌이나 가로등 같은 시설물들이 ‘역사와 문화’란 인사동의 고풍스런 분위기와 과연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2000년 9월 18일자)

서울 인사동 거리가 6개월 간의 역사문화탐방로 조성공사를 끝내고 13일 시민들에게 새 모습을 드러낸다.

종로쪽 입구인 남인사마당은 새로운 만남의 장소로 변신했다. 옛 정취를 살리는 상징물인 나무기둥 8

개와 크고 작은 물동이 3개가 입구의 시작을 알린다.

넓직한 마당에는 5백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이 들어섰고, 가장 큰 불편을 초래했던 공중화장실도 3개 동이나 마련됐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보행자 중심의 거리 조성이다. 종로쪽 입구부터 안국동 로터리까지 6백90m 구간을 전통 흑회색 점토벽돌로 포장, 한국의 전통적인 운치와 멋을 살렸다.

평일에는 차량 통행이 가능하지만 6~15m였던 도로 폭을 5~8m로 조정해 걷는 사람 위주의 거리를 만든 것. 서울시 관계자는 "전통적인 흑색을 살리기 위해 점토 벽돌을 개발하는데 4개월이나 걸렸다"며 "자동차가 지나가도 끄떡없는 견고함까지 지녔다"고 설명했다.

거리 양쪽에는 80여 개의 돌벤치와 70여 개의 물확화분이 적당한 간격으로 배치됐다. 아직은 새하얀 돌벤치지만 손때가 묻으면 인사동의 고전적인 분위기와 어우러질 듯하다. 복인사동길에 늘어선 플라타너스 나무 주변에도 앉을 자리를 마련했다.

쉬엄쉬엄 구경하며 안국동 로터리쪽 복인사마당에 다다르면 옛 인사동 시내를 연상케 하는 '복인사물길'이 나타난다.

옛 인사동길을 흐르던 시냇물을 본뜬 40여m 길이 물길에서 사람들은 손을 씻기도 하고 동전을 던지며 소원을 빌기도 한다.

새 인사동길을 계획 설계한 서울포럼 김진애 대표가 "기존의 전통적인 것을 손대지 않고 자연스럽게 옛것을 표현하려 했다"고 말한 것처럼 인사동길은 '변한 듯하면서 변하지 않은' 전통적인 멋을 느끼게 한다. (동아일보 2000년 10월 12일자)

2. 인사동의 한옥들은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인사동의 한옥은 사람 사는 집에서 음식점으로, 찻집으로 변화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겉모습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동 한옥은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래도 유지해야 하는 것일까요? 인사동의 한옥...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생활의 각박함을 잠시 벗어나 운치 있는 한옥 고택에서 전통차 한 잔 마시고 싶은 사람은 문화의 거리 인사동으로 가보자. 경인미술관 안에 자리잡은 전통찻집 '다원' (02-730-6305), 전통 한옥과 정원의 풍치를 그대로 살려 찾는 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곳이다.

대청마루와 안방, 건넌방을 모두 터서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바깥 정원을 차 향기와 같이 감상할 수 있게 꾸민 곳이다.

지방문화재 제16호로 지정됐던 경인미술관 전시실은 개화파 정객 박영효의 저택이다. 서울의 8대가

중 하나였던 박영효의 생가 본체는 남산 한옥마을이 조성되면서 그곳으로 옮겨졌다.

공간을 늘리기 위해 한옥 옆에 새로 건물을 지어 예전 같은 고즈넉한 맛은 좀 덜하지만 5백 여평 대지를 미술관과 아트숍, 찻집으로 꾸몄다.

1주일단위로 전시작품이 바뀌는데, 미술관은 연중무휴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일반에 무료 공개된다.

찻집과 붙어 있는 제 3전시실에선 강범수, 김창훈, 노성민, 이상윤씨 등 젊은 일러스트레이터들의 '그림두루마기 첫번째 이야기' 전시가 27일까지 열리고 있다.

전시회 일정에 맞춰 콘서트와 이벤트행사도 종종 마련돼 주말과 공휴일에는 가족 단위로 나서기에도 좋다.

주중에는 인근 골동품 가게나 화랑을 찾는 중 장년층과 젊은 데이트 족은 물론, 화가와 국악인, 문인들이 이곳에서 차를 즐긴다. 낮엔 40-50대 고객이 많지만 저녁엔 20-30대로 찻집이 붐빈다.

이곳 운영을 맡고 있는 업체식 과장은 "도심 고풍스런 분위기를 찾아 젊은 손님들이 늘고 있다" 고 한다. '30대 이상에겐 갤러리가(街), 40대 이상은 골동품가, 20대 이상은 카페거리라는 인사동의 공식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다' 는 설명이다.

미술관 정원은 야외 찻집으로 꾸며져 봄·여름·가을 야외 조각전시품들을 감상하며 차를 마실 수 있다.

'다윈' 에 앉아 있으면 쓸새없이 정원을 가로지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 이곳 정원은 다름 아닌 인사동 거리와 종로경찰서 뒤 안국역을 잇는 지름길. "사람들이 우연히 미술관 정원에 발을 디뎠다 소담한 한옥 찻집을 발견하곤 잠시 쉬어가기도 한다" 고 업과장은 귀뽕한다.

메뉴는 작설차와 생강차,국화차,수정과,식혜,오미자차,대추차,인삼차 등 전통차 21가지. 여름철엔 매실냉차와 오미자화채가 인기다.

인스턴트를 사용하지 않고 경동시장에서 모든 재료를 구입해 직접 만든다.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주차시설은 없다. (중앙일보 2000년 6월 24일자)

인사동에서 건물은 보존대상이 아니다. 설문조사결과 화랑과 미술품에 의해 인사동이 특징지워지는 것임. 몇몇 건물을 제외하고는 인사동의 한옥은 보존가치가 없다. 전통한옥은 문제점이 많고 우리의 필요성과 차이가 많다. 지금의 한옥은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되고, 특히 마당은 실내화하여 개조화하여 영업장소로 사용되고 있고, 외형도 변형하여 사용한다. 인사동 한옥은 20평 미만이며, 천장이 낮아서 미술품의 전시에 부적합하다. 30-40평은 되어 화랑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우리 유산의 보존측면에서 인사동의 한옥은 개조된 영망진창인 한옥이다. 보존의 대상이 아니다. 전통한옥은 전통 그대로 보존해서 보여주는 것이 보존이다. 영업의 목적으로 개조된 것은 무질서한 것이며 보존의 대상이 아니다. (http://www.uos.ac.kr:8177/~city/data/history/insadong/toron01_after.htm)

3. 인사동 건물들은 꼭 낮아야 하는가 vs 높아도 되는가?

인사동에 높은 건물들이 하나 둘 생기면서 인사동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고, 도심에서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대식 건물 신축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서울 인사동의 상징 '12가게'가 되살아났다.

지난 22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인사동 중심부에 위치한 영빈가든 널찍한 마당에는 소박한 고사상이 차려졌다. 지난해 12월 18일 쫓겨났던 동서표구화랑과 문방사우를 파는 사보당이 되돌아온 것을 자축하는 잔치마당이다.

돼지머리, 팔시루를 듬뿍 얹은 고사떡, 막걸리가 출렁이는 함지박 주변에는 12가게의 주인과 12가게 살리기 운동을 펴온 도시연대 측의 관계자들이 둘러앉았다. 1백억 원대 땅을 흔쾌히 내놓은 '쌈지'의 천호균(千浩均)사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동서표구사 나정수(羅正洙)사장이 "12가게는 20-30년 동안 인사동을 지켜온 터주대감"이라고 운을 떼자, 千사장이 "12가게를 꼭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방사우, 표구, 도자기 판매점과 전통음식점, 찻집 등이 옹기종기 늘어선 12가게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진 것은 지난해 11월. Y건설회사가 12가게가 들어선 4백 40여 평의 땅에 고층 빌딩을 짓기 위해 땅주인이던 P출판사로부터 땅을 매입하고 12가게에 올 3월까지 가게를 비워달라고 통보했다.

이를 전해들은 도시연대를 비롯한 문화예술인들은 '12가게 지키기 서명운동'에 나섰고 3만 5천명의 시민이 호응했다. 도시연대의 설득에 서울시는 올해부터 2년간 인사동에서의 건물신축을 규제하는 조치를 내렸다.

Y건설회사는 12가게 가운데 두 곳을 쫓아내기도 했으나 결국 개발이익이 보장되지 않자 땅을 내놓았고 수익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성토털패션업체인 쌈지가 이 땅을 사들였다.

도시연대 최정환(崔庭漢)사무총장은 "千사장이 12가게를 인사동의 정취에 맞게 사용하겠다고 하며 가게 주인들과 '아름다운 협정'을 맺었다"고 소개했다.

평소 문화사업에 관심이 많았다는 千사장은 "가게들이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도록 수리하고 지하에는 한국의 과거, 현재, 미래를 대표하는 디자인 상품의 전시·판매장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2000년 5월 24일자)

도시연대와 함께 한 인사동의 발자취

● '인사동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인사모)의 구성과 도로확폭 반대활동

인사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97년 4월부터 시작된 '차 없는 거리' 지정과 각종 문화행사를 통해 인사동길은 전통문화명소가 되었다. 도시연대는 '차 없는 거리'가 인사동의 장소적 특성과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97년 지역실태와 차 없는 거리행사의 진행과정을 조사 분석하게 되었다. 그 결과 언론 등에 의해 알려진 성과와는 달리, 지역상인 및 문화예술인들의 참여가 극히 미흡한 가운데 일회적인 이벤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게 되었다.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도시연대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인사동을 살펴보고 바르게 이해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또한, 오늘의 인사동을 일구어낸 가게들이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속 깊은 문제들을 들여다보고 시민들이 구경꾼이 아닌 참여자로서 인사동문화의 유지보존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98년 7월 도시연대의 회원모임인 '인사동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이하 인사모)의 발족은 시민을 문화주체로 세우기 위한 첫 시도였다. 인사모는 시민과 지역상인의 관심사였던 인사동 활성화방안에 관한 지역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공식 발족되었다. 시민단체, 상인조직, 서울시 및 종로구 관계자,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 토론회에서는 인사동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나타나고 차 없는 거리행사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공개되기 시작하였다. 지역토론회 이후 인사모는 98년 9월 제1회 인사동사랑방 토론회를 개최하여 긴급한 현안이었던 인사동길 확폭 문제를 쟁점화 시키고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인사동길 확폭 문제는 37년 간이나 시행되지 않고 미루어온 인사동길을 넓히려는 공사 일정이 구체화되면서 지역에서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사랑방토론회를 통해 종로구와 인사전통문화보존회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인사동길 확폭 공사에 대해 반대여론이 조직되었고 쟁점화 되었다.

인사동길 확폭이 인사동 경관 및 분위기를 훼손하고 개발을 부추김으로써 인사동을 급격하게 여느 상가와 크게 다르지 않게 만들 것이라는 도시연대의 입장이 설득력을 갖게 되면서 확폭 공사는 중지되었다.

인사동길 확폭 반대활동 속에서 형성된 상인들과의 유대를 바탕으로 도시연대는 98년 11월부터 시민이 인사동문화를 체험하는 인사동 역사문화 탐방행사를 시작하였다. 그 목적은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도시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역사문화 탐방프로그램은 시민운동차원에서 인사동 살리기 활동의 폭과 저변을 크게 확장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이 성과는 99년에 들어와 더욱 체계화되고 풍부한 활동으로 발전했다. 매월 진행되는 탐방행사에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과 자원봉사자, 안내교사(가이드)들이 참여했다.

역사문화 탐방프로그램이 지속되면서 전문가중심의 인사모는 인사동을 아끼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참여하는 동아리형태로 그 성격과 구성원들이 보다 다양한 시민들로 구성되기 시작했다. 시민모임으로 전환된 인사모를 중심으로 99년 탐방프로그램이 진행되고 하반기에는 인사동가이드북이 만들어졌다. 인사모의 활동 중 가장 돋보인 성과는 99년 11월 인사동길 한가운데 있는 열두 가게가 한 건설회사에 매각 계약되면서 인사모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시민서명운동에 돌입한 것이었다. 이 때 인사동 환경을 보존하기를 소망하는 시민들의 열망을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 작은 가게 살리기 운동

인사동만의 작은 가게들.. 지켜야하지 않겠어요

작은 가게 살리기 운동은 최근 수 십년 간 한 곳에서 유지·보존되어온 작은 가게들의 퇴출로 인해 인사동지역의 독특한 문화환경이 훼손되어 제 모습을 잃게 되는 것을 막아보자는 노력이었다. 인사동 지역은 차 없는 거리를 실시한 이후 급격한 변화를 겪으며, '개발이냐 보전이냐'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인사동지역에는 여러 작은 가게들이 몰려있는 곳을 합필하여 하나의 대형건물을 신축하는 사례들이 나타나면서 그동안 인사동의 분위기를 만들어왔던 명물인 작은 가게들이 퇴출되어 인사동 파괴의 첨병이 되었다. 열두 개의 작은 가게들 역시 이러한 건축행위의 연장선상에서 퇴출대상이 된 것이다.

작은 가게 살리기 운동의 촉발이 되었던 곳인 열두 가게(영빈가든(한정식), 동서표구사(표구), 인예랑(목공예), 경남화랑(그림, 표구), 도한사(도자기), 예성서각원(목공예, 전각), 아원공방(금속공예), 청도화랑(사예, 표구), 사보당(서화용구), 보원요(민속도예), 세로방(표구), 찻집그리고(차, 음료)) 땅은 인사동지역 한복판에 있다. 작은 가게 살리기 운동은 이 열두 가게 땅이 한 건설회사에 매

입 계약됨으로서 직접적으로 등장하였다. 열두 가게 땅이 개발이익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건설회사에 의해 매입됨으로써 인사동지역의 분위기와 정취가 일거에 무너질 위기를 맞게 되었다. 따라서 도시연대와 가게주인 등 많은 시민들은 인사동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통과 문화를 체감하게 해주는 생명력 넘치는 개펄과 같은 도시공간으로 살아있도록 작은 가게들을 살리는 운동을 진행하였다.

작은 가게 살리기 운동은 1999년 11월 5일 원소유자가 열두 가게 땅의 매매계약을 통보함으로서 열두 가게 문제가 가시화되어, 매입주체의 개발추진과 열두 가게 상인들과 도시연대의 대응으로 점점 열기를 더해 갔으며, 1999년 12월 8일 작은 가게 살리기 운동이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상인들과 도시연대는 서명운동과 청원운동, 성명서발표 등 적극적인 홍보와 활동을 전개하였고 이 가운데 두 가게의 강제퇴출과 건축허가제한 조치 등이 발동되는 등 상황이 급속도로 전개되었다. 도시연대는 “건축허가 제한조치” 등 전문적인 영역으로 운동의 중심이 변화됨에 따라 단순한 서명운동 등의 형태만으로서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도시·건축분야의 전문가 14인을 위촉하여 “인사동사랑방”을 발족하였다. 당초 토지매입 계약을 체결한 건설회사는 건축분양 대금으로 토지 값을 치를 생각이었으나, 건축허가제한 조치로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어 결국 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2000년 5월 1일 이 땅을 인수한 사장은 퇴출된 두 가게의 재입주를 약속하는 등 해결의 물꼬를 트었다.

이 운동의 결과로 나타난 건축허가 제한조치와 도시설계수립 등 향후 바람직한 인사동 만들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사동의 토지주들과 상인들은 물론 많은 시민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많은 시민들이 인사동학교를 계기로 인사동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 인사동 사랑방

인사동에 대해 깊이 생각한 시간이었어요

인사동사랑방의 배경 및 의의

인사동지역은 독특한 정취와 분위기가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 받고 있다. 그러나, 근래 이 곳은 차 없는 거리조성 사업 등으로 촉발된 상업적 발상에 의해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다. 차 없는 거리에 의한 상업화의 가속, 상업대형화를 통한 작은 가게들의 멸실, 행정축 발상에 치우친 인사동길 조성사업으로 골목길 훼손, 대수선을 포함한 원칙 없는 건축행위 빈발 등으로 인사동은 점점 제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인사동지역은 최근 작은 가게 살리기 운동을 통해 건축허가 제한과 도시설계 수립이라는 인사동 살리기의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연대는 도시설계지구 및 문화지구의 공론화와 대안 만들기를 위해 인사동사랑방을 구성하였다.

논의된 주요내용

1차 회의는 2000년 1월 20일(목)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이루어졌다. 서울시는 인사동을 서울시가 도심에서 팔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문화상품으로 생각하고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다. 인사동지역에 대한 도시설계의 방향은 활동과 물리적인 모습을 함께 다루는 종합적인 접근으로서 스케일을 유지하며, 장소성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규제와 지원이 병행하고, 시민·주민이 참여하는 “온전한” 도시설계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인사동 도시설계에서 도시연대의 역할은 방어의 역할, 중재·조정 역할, 참여주체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2차 회의는 2000년 3월 8일(수)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있었다. 건축허가제한 조치를 풀기 위한 토지주의 집요한 민원제기로 예외적 건축허가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도시연대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논의의 중심이 있었다. 인사동의 도시설계는 일반적인 경우와 상황이 다르므로 처방도 다르게 접근하는 등 주민참여형 도시설계를 추진하여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세 번째 모임은 2000년 4월 14일(금) 인사동 영빈가든 별채에서 진행되었다. 현재의 인사동 분위기는 인사동 길 공사, 대수선진행 등으로 개발드라이브에 휩싸여 있음을 공유하였다. 인사동길 공사 후의 임대료 상승 등 우려할만한 요인발생이 예상되므로 인사동길 공사에 대해 예상되는 폐해를 정리하여 행정당국에 요구서를 발송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네 번째 모임은 2000년 12월 29일(금요일) 조계사 불교대학에서 진행되었다. 인사동은 현재 시장 구조상 골동품, 표구 등은 점점 감소하고 있고 상인들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전통적 업종이 유지·보존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구조조정을 통해 새롭게 탈바꿈될 것인지 또한 공공재정의 보조로 인사동을 살아있는 민속촌처럼 만들 수도 있으나 상인 스스로 변화에 대응할 힘을 조직화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위한 전략을 세워 지역적 힘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사동 사랑방의 성과와 발전방향

‘인사동사랑방’은 도시연대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역량을 한정된 대상에 집중하여 문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발전된 시민운동의 모범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속력을 가지지 않고 느슨한 모임의 성격으로 인해 사안의 경중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해오지 못해 기민한 대처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인사동에서 진행될 주민참여형 도시설계의 주관 전문가그룹으로서 지주와

상인, 행정을 매개·조정하는 역할과 바람직한 주민참여형 도시설계의 방향제시가 가능한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 천상병 문학제

천상병 문학제, 그것은 가난할 뿐인 한 줌의 여유

그야말로 파란빛의 신록의 달이 좋아라 하던 시인의 오월입니다.

한 해 전 바로 이맘 때, 인사동의 한 음식점 작은 뜰에는 그를 추억하기 충분한 커다란 사진이 덩그러니 그 자리를 먼저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그런 다음으로 그를 더욱 살갑게 추억하게끔 그의 생전 모습을 담은 비디오가 한 귀퉁이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차츰 그를 또는 그의 시를 새삼 그리워하겠다고 모여 든 사람들로 제법 메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소박하지만 추억할 수 있다는 여유에 감사하며 차라리 그 자리를 즐겨워했던 것 같습니다.

천상병 문학제를 준비하면서, 시인-시인의 아내-인사동의 귀천,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두고 잠시는



신실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시선을 탐독하고, 시인의 천사 목순옥 여사님을 만나 뵙고, 또 공연히 이리 저리 인사동을 배회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그려둔 삼각형에 꽤 여러 날 고집한 결과, 그의 영혼과 삶을 조금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그의 삶과 영혼에서 찬란한 자유와 행복이라는 다소 아이러니한 명제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날 그를 추억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분명히 작은 행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분명 시인이 추구하던 이룩한 삶의 한 구석에 기대어 휴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숭상하기 마련인 영악한 지식이나 호사스런 삶의 장치들은 이 자리에서만큼은 무색해 보였습니다. 그저 2000원이면 충분했던 시인의 가난한 여유면 충분해 보였습니다.

시종 차분하고 애뜻하게 진행된 식이 끝나고 베풀어졌던 만찬도 잊을 수 없는 기억입니다. 서울 하늘아래 그 날처럼 살듯하게 어울릴 수 있는 자리도 어려울 거란 생각에 이내 그 날이 그리워집니다.

● 인사동 역사문화탐방행사

시민들과 함께 인사동을 살펴보았어요

1998년 11월, 서둘러 찾아온 추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과 함께 「제1회 역사문화탐방행사」가 시작되었다. 탐방행사는 인사동 역사문화를 이해하고 유지보존을 위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다. 이 행사에는 25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으며 성인팀, 청소년팀, 어린이팀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특히 청소년팀은 1주 전부터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다양한 탐방주제를 조별로 나눠 진행하였다. 탐방 후에는 참가자들의 소감문을 통해 이들이 바라보는 인사동을 그려보는 시간도 가졌다.



1999년 4월, 우리 문화의 이해가 절실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사동 살펴보기」주제의 탐방을 재개하였다. 소규모의 살뜰한 탐방행사를 원했던 이번 행사에는 청소년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내교사와 함께 조별로 인사동의 역사유적지를 중심으로 탐방하고 난 후 조마다 특색 있는 탐방로를 대형 지도에 그리고, 소감을 함께 나누면서 어우러지는 자리를 가졌다.



신록의 5월에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와 함께 하는 인사동 보물찾기」를 주제로 아이들을 포함한 가족대상 탐방행사를 대규모로 개최하였다. 이날의 탐방은 부모와 아이가 함께 인사동 보물을 찾아 나서는 재미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탐방 후에는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연극놀이와 동화를 상연하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언이어 6월에는 「내가 만드는 인사동 역사문화탐방」으로 개최되었고 10월에는 「우리가 만드는 인사동 역사문화탐방」이라는 주제로 쌀쌀한 초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관광교육원생, 대진대 도시공학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모두 100여명이 참가하여 뜨거운 열기를 보여줬다. 10월 마지막날, 「시민의 손으로 인사동 그리기」의 번개탐방을 마지막으로 매 회마다 색다른 테마를 가지고 진행되었던 탐방행사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또 다른 형태의 탐방을 꿈꾸고 있다.

● 인사동학교

작년에 있었던 인사동 학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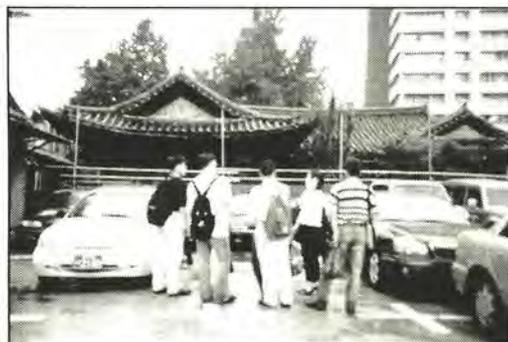
98년 11월, 인사동 탐방행사를 시작으로... 세월이 흘러 밀레니엄의 첫발을 내 딛는 2000년!!

인사동학교는 다시금 재도약의 힘찬 날개 짓을 시작하였다. 그간 청소년 대상으로 출발한 프로그램은 점차 청소년은 물론 어린이, 성인으로 그 대상을 넓혀가며 내실 있는 인사동의 시민대상 프로그램으로써 변화를 거듭해오고 있다.



2000년 6월 17일, 1기를 시작으로 10월의 4기까지 2000년 인사동학교는 총 4기 16강좌로 진행되었다. 인사동을 알고자하는 시민들에게 인사동의 참 모습을 알려주고 나누고 싶은 바람으로, 더 나아가 인사동을 통해서 우리의 주거환경을 돌아볼 수 있는 자리가 되고자 했다.

1강좌는 1기부터 4기까지 '인사동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주제로 경기대 건축학부 이상구 교수님과 도시연대 최정한 사무총장님께서 각각 진행하셨다.



인사동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 그리고 과거로부터 변화된 현재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시각자료를 활용하여 나타내셨다. 서울의 대표적 문화거리로서의 인사동, 전통문화와 다양한 옛 것을 볼 수 있는 인사동 뿐만 아닌 우리가 좀더 아끼고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서울의 대표적 전통문화단지로서의 가치를 일깨워주

는데 부족함이 없는 강의였다.

2강좌는 각 기수별로 인사동의 특색 있는 테마(표구, 고서, 다도, 화랑)로 진행되었다. 인사동의 다양한 전통문화에 실제로 종사하시는 선생님(상인)들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강의와 질의응답, 때로는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인사동 전통문화의 현재모습과 변화양상에 대한 소중한 경험을 갖을 수 있었다. 특히 3기의 “차 향이 있는 다도의 세계”는 차도문화원 「반야로」원장님께서 실제 정신수련차원의 다도를 직접 시연해 주셨고, 손수 만드신 차를 참가한 학생들과 음미하는 화기에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어 참가자들의 열띤 호응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체험학습인 3강좌 인사동탐방은 모두가 가슴 설레게 기다려온 시간이였다. 5~6명씩 조를 이루어 역사문화유적지, 한옥과 골목길, 특색있는 가게, 음식점과 찻집 코스를 가이드선생님과 함께 그간 쉽게 볼 수 없었던 또는 무심결에 지나쳤던 인사동의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대다수의 참가자 분들은 인사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세히 알 기회가 없었다고 한다. 특히 골목길과 한옥, 다양한 문화업소들을 보며 참으로 흥미 있고 의미 있는 탐방이었다고 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그리고 참여하신 시민들 모두 저마다 알고 있는 인사동에 대한 이야기와 정보를 서로 나누어, 모두가 인사동학교 학생이며 또한 가이드인 강좌였다.

마지막 4강좌에서는 수료식을 포함한 1, 2강좌 및 인사동탐방의 내용에 대한 평가 및 자유토론을 하였다.

한 달에 두 번 총 4시간 강좌로 인사동의 모든 것을 담아낼 수는 없다고 본다. 단지 인사동을 좋아하는 하나만으로 참여하신 어린 학생들부터 70세 어른까지, 서로가 알고 있고, 느끼고 있는 인사동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였다. 안타까운 인사동의 현실 앞에서 개인은 너무나 작게 느껴지지만 인사동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작지만 우리들도 인사동의 가치를 지켜가도록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머리 맞대고 고민할 수 있다는 것은 인사동학교의 큰 수확 이였다.

인사동학교를 진행하며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부족하고 아쉬운 점 또한 많았지만 어려운 시간을 쪼개고 쪼개 함께 만들어간 인사동학교는 다시 올해 2001년을 준비하며 인사동 작은 가게에서부터 국내 및 외국의 사례 등 인사동학교에 필요한 내용이라면 어디든지 찾아 나설 것이다.

● 인사동 가이드북 제작

인사동에 관해 많은 얘기가 담겨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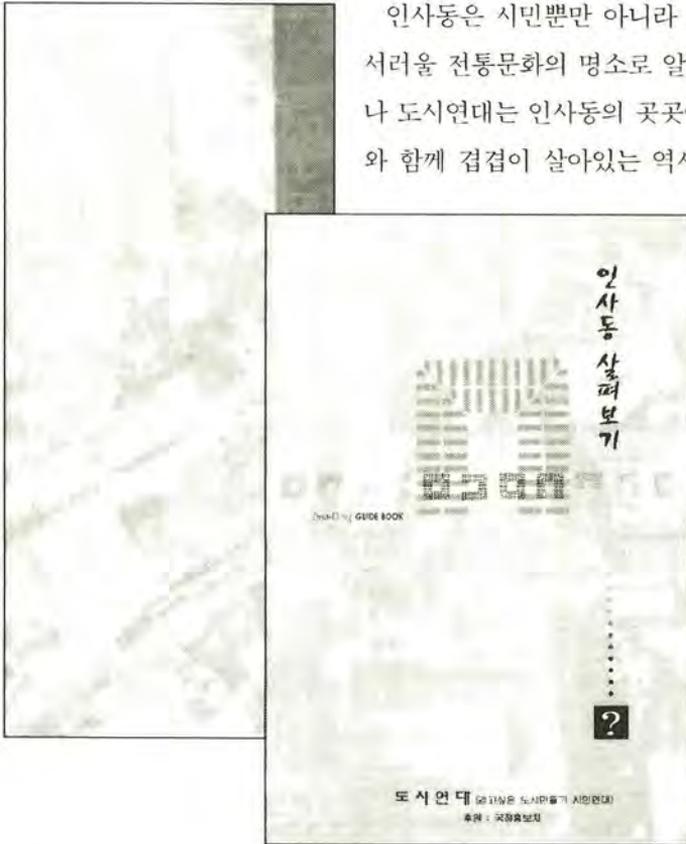
도시연대 복촌문화센터는 작년과 제작년, 두 권의 가이드북을 가지게 되었다. 99년의 ‘인사동살펴보기’ 와 2000년의 ‘인사동 · 복촌 살펴보기’ 가 그것이다.

인사동은 시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이미 서울에서 버금가면 서러울 전통문화의 명소로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다. 그러나 도시연대는 인사동의 곳곳에 숨어있는 역사유적지나 인사동 역사와 함께 겹겹이 살아있는 역사문화이야기 등 인사동 한켠에 오롯이

새겨진 보물들에 대해서는 잘 알려 있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왔다.

수 차례 탐방행사가 진척되어 오면서 인사동의 숨겨진 보물들을 발견하고 이렇게 축적된 보물들을 모든 시민과 공유하고자 하는 소망에서 인사동 가이드북을 기획하게 되었다. 보다 시민이 원하는 가이드북을 만들기 위해 작은 힘들을 모아 한여름을 더욱 뜨겁게 달궜다.

한여름의 훈증에도 불구하고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욕심으로 번지까지 꼼꼼하게 챙기면서 인사동



골목 구석구석까지 살살이 뒤지며 돌아다녔다. 또한 인사동의 정겨운 풍경을 소중히 사진으로 담아두었다. 이제 서야 밝히는 것이지만 사진촬영 작업을 하던 중 보다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수운 회관의 9층 난간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출입금지로 되어있던 민익두 가를 월담하여 훑쳐보았던 일은 잊을 수가 없다. 때로는 가이드북에 실릴 글을 위해 사료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이나 비화들을 배워 가는 소득도 심심치 않게 챙길 수 있었다. 조사를 하면서 모르고 있었던 인사동의 소중한 보물들을 찾아 내노라면 정말 보물을 얻은 것 마냥 즐거워할 정도로 모든 일원들은 열심히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았다.

자료가 수북히 쌓여갈 즈음 메카디자이너의 도움을 받아 디자인 작업에 들어갔고 더불어 마지막까지 가이드북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논의하고 고민하였다.

이윽고 오래도록 준비한 가이드북은 「인사동 살펴보기」라는 이름으로 출간되었다. 바램이나 의욕에는 미치지 않더라도 여러 시민의 힘으로 완성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기억될 수 있을 것이며 그 시대는 아름다웠다고 하겠다.

2000년 '인사동 · 북촌 살펴보기' 는 여러 가지에서 99년 '인사동 살펴보기' 와 다르게 기획되었다.

무엇보다 인사동과 더불어 북촌의 정보를 함께 담으려고 하였다. 또한 업소명과 위치 등을 상세하게 표시하여 찾기 쉽도록 하기도 하였다. 휴대가 간편한 포켓형으로 제작하였으며, 영문판과 일어판을 동시에 제작하였다.

인사동길을 중심으로 동편 3구역과 서편 7구역 등 모두 13구역으로 지도를 나누고 2000년 8월 현재 상점의 이름들을 용도별로 나누었다. 그러한 현재의 커 속에서 과거의 흔적에 대한 위치와 설명을 함께 적었다.

특히 1910년과 지금의 길들을 비교하여 인사동에 남아있는 많은 옛길들의 자취와, 3.1독립선언문을 인쇄한 보성사 터부터 조선시대 관아 터, 더 멀리 조선건국의 일등공신인 정도전의 집터가 표시된 표석들의 위치를 살펴 볼 수도 있다. 이를 통해 내가 걷는 이 길의 역사와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인사동의 현재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인터넷 속에 담겨있는 인사동에 대한 설명들을 담았으며, 버스 편과 지하철입구 등 교통편과 주차장의 위치를 표시하여 보다 쉽게 인사동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약국, 병원, 은행, 편의점 등 생활편의시설의 위치와 전화번호도 실어서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사동가게 찾아보기는 상점이름들을 용도별로 나누고 위치를 표시하여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들 자그마한 두 권의 책이 인사동의 참된 모습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 보완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 인사동 거리문화축제

거리문화축제!.. 그 축제의 장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2000년 한 해 동안 인사동에서는 두 번의 거리문화축제를 진행되었다.

첫 번째로 지난 6월 18일 어린이와 함께 하는 인사동 거리문화 한마당이 펼쳐졌다.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500여 가족(총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동 보물

찾기, 마당극『백두거인』관람, 가족이 함께 오리고 색칠하여 만든 전통등 만들기, 포졸놀이, ningma놀이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인사동 보물찾기는 인사동의 역사·유적지 중에서 명확하게 찾



아갈 수 있는 지점들을 보물로 선정해 놓고 부모와 어린이가 한 조가 되어 지시사항이 적힌 보물종이를 들고 안내자료와 지도를 보면서 스스로 찾아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모두들 처음 가는 길이고 지역의 명물로 인식되지 않은 곳이라서 찾아다니기 힘들 것이라는 주최측의 예상을 뒤엎고 준비한 보물종이가 1시간만에 동이 나버리는 의외의 사태가 벌어졌다.

『백두거인』공연 전에 진행된 ‘함께 노래하기’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박수치며 함께 한 즐거운 시간이었다.



인사동 역사문화탐방로 조성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엄마, 아빠와 신이 나서 유적지를 찾아다니는 어린이들로 오랜만에 활기를 찾은 인사동이었다.



두 번째로 지난 10월 29일에는 ‘서울 시민의 날 기념 인사동 거리문화축제’ 그리고 ‘시민과 함께 인사동 거리문화 만들기 축제’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지역의 종교단체인 조계사와 상인모임인 인사동보존회, 인사동식구들, 한국표구화랑협회 등이 함께 참여하고 진행하였다.

마침 음력 개천절이어서 더욱 뜻깊었던 통일기원 열두 계단 작두굿, 한지공예 배우기, 도예시연, 다도시연, 표구시연, 떡메치기, 발우고양, 좌선시연, 전통차 및 음식시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볼거리로 인사동을 찾은 시민들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리였다.

특히 인사동의 역사유적지, 전통가로인 골목길과 한옥, 인사동의 인물, 인사동의 과거에서 현재의 내용을 담아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한 인사동거리미술전은 그림 그리기 20분만에 대부분의 그림이 완성되어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다.

2001년도에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5월 5일, 어린이와 함께 인사동 역사문화배우기』 축제가 500여 가족(총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몇 차례의 경험을 밑거름 삼아 진행된 '인사동 보물찾기'는 보물로 선정된 지점마다 다양한 내용의 게시판을 전시하여 참여한 어린이들이 인사동의 역사문화를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체험의 장이었다.



'인사동 보물찾기' 후에 진행된 어린이 놀이 한마당은 전래놀이인 비석 치기, 줄넘기, 제기차기, 망 쭈기 등 십여 가지의 놀이로 땀흘리며 신명난 놀이의 마당이었다.

거리축제의 꽃은 뭐니뭐니 해도 자원봉사자들이다. 해마다 진행된 거리축제마다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이 큰 힘이 되었는데 이번 축제에도 3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단순 작업에서부터 인사동의 역사문화 설명까지,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한 몫을 톡톡히 하였다.

인사동 거리문화축제를 통하여 지역의 거리활성화와 날로 위축되어 가는 역사문화환경을 유지 보전하고, 인사동의 이미지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시민과 주민(상인), 지역의 예술인들이 우리의 역사문화와 거리문화가 살아있는 인사동을 되짚어보고 가꾸어 가야 함을 일깨우는 장으로 자리 매김하려 한다.

도시연대는 이런 일들을 한답니다.

● 마을만들기센터

1. 주민참여 마을학교

- 주민, 지역단체,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마을 만들기에 관심있는 시민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
- 마을만들기가 진행된 지역의 배경, 과정, 현황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사례집 제공
- 스스로 마을을 변화시키는 체험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주민참여를 가상으로 체험

2.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도시, 주민참여, 그리고 마을만들기」

- 주민참여 경험이 있는 주민과 마을만들기 관련 전문가의 강연을 통해 국내, 국외의 다양한 주민참여 사례를 소개하고 현 단계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 아파트 지역과 주택가 지역의 주민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마련

● 북촌문화센터

1. 인사동학교

- 인사동 알아보기: 인사동의 역사와 유래, 현실/ 인사동의 문화적 특성과 현실
- 인사동 가꾸기: 인사동 작은 가게 살리기 운동/바람직한 인사동 만들기
- 인사동의 역사유적지, 전통가로, 문화업소 등 현장탐방 학습
- 청소년 인사동 교실 운영

2. 골목길 가꾸기

- 인사동을 이루는 주요한 특성 중 하나인 골목길을 주민들과 함께 친숙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가꾸기

3. 인사동 거리문화축제

- 인사동의 이미지에 맞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의 거리활성화 및 역사문화환경 보전

4. 인사동사랑방

- 시민의 입장에서 인사동 및 북촌지역의 보존방안 및 도시설계의 방향·과제 제시

● 시민교통센터

1. 시민에게 편리한 대중교통 만들기

- 지하철 및 버스 서비스 평가지표 개발 및 서비스 기준 수립 및 조사
- 지하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민위원회 구성
- 서비스 개선을 위한 설치캠페인 「지하철 역사, 이렇게 바꿉시다」
- 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캠페인
- 서울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육성조례」제정 운동

2. 자전거에 친숙한 도시 만들기

- 자전거 주류장 및 자전거 안내시설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자전거 이용환경 정비
-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실 및 면허시험 시행

3.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안전한 도시만들기

- 어린이 보호구역 현실화를 위한 시범사업 진행
- 청소년과 함께 하는 「시민교통학교」진행

걷고싶은 도시는 살고싶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첫출발입니다. 살맛 나는 도시에 살고 싶어하는 모든 주민이 바로 도시연대의 주인입니다.





도시연대 회원 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견고싶은 도시, 더불어 사는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도시연대 회원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도시연대 회원에 가입해 주십시오.

■ 회원의 구분과 혜택

내용구분	일반회원	자료회원	평생회원
회 비	월 5천원 이상 (연 5만원 이상)	월 1만원 이상 (연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회원혜택	소식지 격월간지 「견고싶은 도시」	소식지 격월간지 「견고싶은 도시」 자료집	소식지 격월간지 「견고싶은 도시」 자료집
	도시연대 회원은 도시연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활동 및 모임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활동이나 자원봉사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도시연대 사무처로 연락 바랍니다.		

■ 회원가입 방법 및 절차

- 도시연대 홈페이지 www.dosi.or.kr 회원가입란을 이용하시거나 사무처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332-6044 담당:임성현 총무부장)
-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시연대로 보내신 후 회비 입금이 확인되면 회원자격이 부여됩니다. 회비를 납부하실 때는 지로용지나 온라인용지에 회원님의 성함을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비납입처

- 지로입금: 지로번호 7647136
- 무통장입금: 기업은행: 049-027308-01-016
(예금주: 견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 자동이체 :회원께서 거래하시는 은행에 가셔서 상기의 은행으로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매 월 회비 납부를 하게 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 문의

견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총무팀 회원담당
주소: (우) 121-190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2-28번지
E-mail: dosi@dosi.or.kr

도시연대

견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2-28 (2층)

전화 02-332-6044 · 전송 02-332-6010

www.dosi.or.kr

